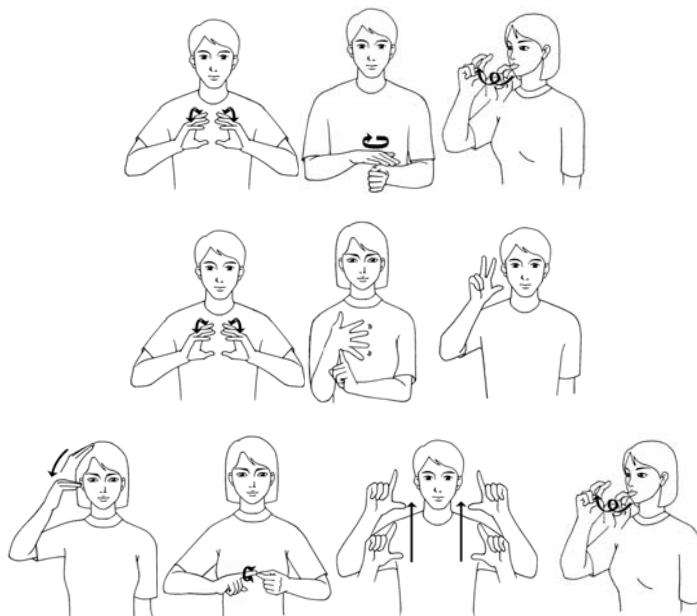


수화로 하는 애국가 · 국기에 대한 맹세 · 한글날 노래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



국립국어원 · 한국농아인협회

수화로 하는 애국가 · 국기에 대한 맹세 · 한글날 노래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

김승국 변승일 주신기 안세준 김기범 윤우중 손천식
권재일 김희진 최용기 강주해 김영관 장진석 장진권
김철관 윤병천 이윌하 이대섭 권석현 안석준

국립국어원 · 한국농아인협회

발간사

국가(國歌)는 국민이 나라에 대한 사랑을 일깨우고 다짐하는 노래입니다. 우리나라의 애국가는 20세기 초엽부터 민간에서 불렸다고 합니다. 서구 열강과 주변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려는 애국 운동의 일환으로 만든 애국가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에 명실상부 대한민국 국가(國歌)로 결정되었습니다.

수화로 하는 애국가는 육이오 전쟁 이후에야 맹아학교 졸업식 등에서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수화가 아니었습니다. 지방마다 약간씩 다른 수화 동작으로 구성되어 지금까지 전국의 농인이 같은 수화 노랫말로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농인들이 같은 수화 노랫말로 부르며 한 국민임을 느끼고 나라 사랑을 되새기게 하는 애국가 제창은 농인의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에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는 애국가·국기에 대한 맹세·한글날 노래의 수화 표준화를 위해 한국농아인협회 16개 시도 협회와 23개 농학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엮어 낸 수화로 하는 애국가·국기에 대한 맹세문·한글날 노래는 한국농아인협회 시도 협회와 농학교 등 21개 단체의 의견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정리하여 만든 수화 표준안입니다.

모든 국민이 표준어를 쓰도록 하는 어문 규범의 실행은 귀중한 지역어를 소멸시키기도 합니다. 지역 곳곳에서는 지역어의 보존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어 보존 운동이 실행되게 된 것은 그만큼 표준어가 강력하게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즘과 같이 정보 통신이 발달하고 다양한 문화를 빠르게 섭렵해야 하는 생활에서 말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사투리만으로 의사소통을 해야만 한다면 그 과정에서 겪는 개인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상황을 상상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그동안 청각 장애인들에게는 일상의 일이었고, 결과적으로 같은 나라 안에 있는 청각 장애인들끼리의 의사소통에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정보 사회의 약자가 되어 문화적 향수의 기회, 전문 지식 습득의 기회 등을 제대로 가지지

2 발간사

못했습니다.

2000년 이후 문화관광부와 국어원의 지원을 통해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청각 장애인들이 의사소통 체계의 비표준화로 인해 겪었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단어를 지역마다 달리 표현하는 수화를 표준화하고 청각 장애인들의 어휘 수를 늘려 언어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바로 그 귀중한 노력의 결과물이 「한국수화사전」과 「한국수화 문형사전」입니다.

2007년부터는 그동안의 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2단계 사업 추진에 착수하여 (1) 전문 용어 수화 등 한국수화의 표준화 사업, (2) 한국수화에 의한 한국어 문장 지도 교재 개발 사업, (3) 수화로 하는 애국가·국기에 대한 맹세·한글날 노래의 표준화 사업, (4) 한국어-미국수화 사전 편찬 및 출판 사업, (5) 한국수화 교재(제1권) 개발 사업 등 한국 수화가 더욱 더 큰 지평을 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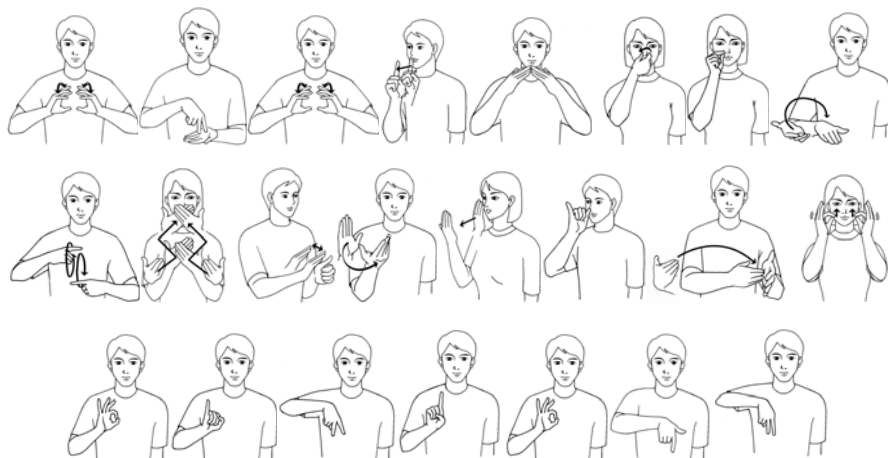
제2단계 사업의 하나인 수화로 하는 애국가·국기에 대한 맹세·한글날 노래의 표준화 사업이 어느새 마무리가 되어 오늘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립국어원이 미력이나마 수화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국립국어원장 이상규

국립국어원은 미력이나마 수화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규



인사말



우리는 수화로 농인만의 독특하고 신비로운 세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수화는 지역과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표준화 사업이 필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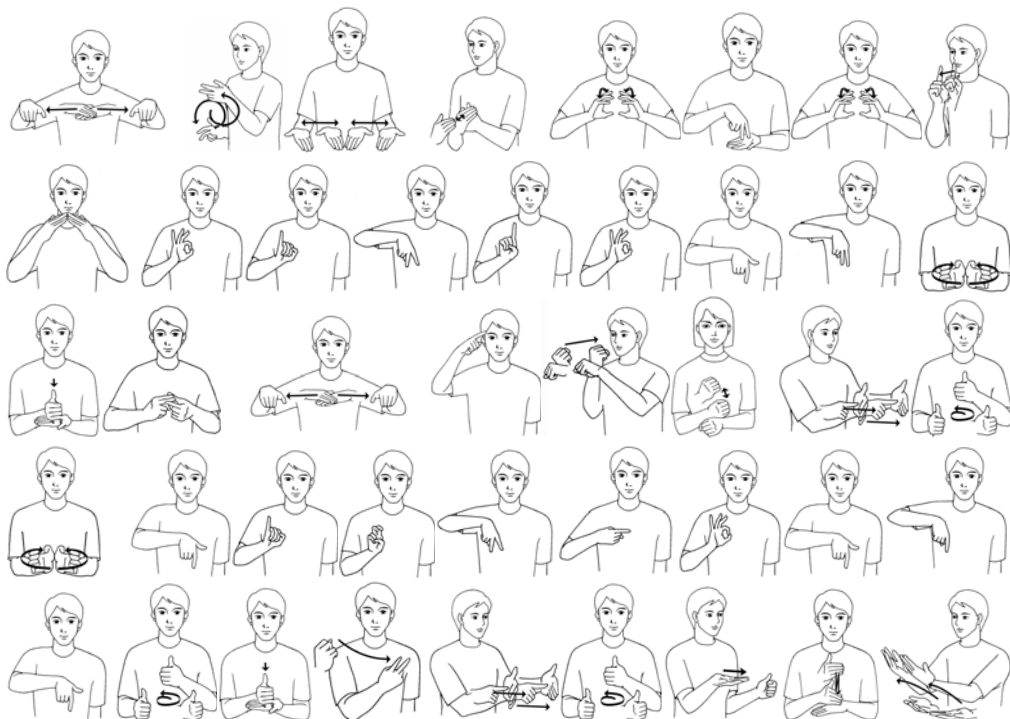
국립국어원에서는 표준화 사업을 위해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수화를 표준화 하였으며, 금년에는 수화로 하는 애국가·국기에 대한 맹세·한글날 노래를 표준화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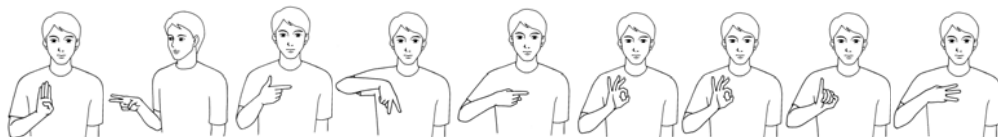
4 인사말



이러한 표준화 사업을 지원해 주신 국립국어원의 이상규 원장님과 표준화 연구를 해주신 추진위원회의 김승국 위원장님과 추진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변 승 일



수화로 하는 애국가 · 국기에 대한 맹세 · 한글날 노래

표준화 연구

머리말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는 2000년 7월 1일부터 2006년말 까지 7년 동안 「한국수화사전」을 편찬하고 「한국수화 문형사전」을 편찬하였다. 그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수화 어원’을 연구하고, 「일본어-수화사전」과 「농인의 국제수화」를 번역하였으며, 「한국어-스페인 수화사전」을 편찬하였다. 이러한 사업 결과는 수화 관련 연구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화 관련 연구의 시작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국수화사전」을 편찬하면서 표제어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나 구로 제한하였다. 농인의 언어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수화 단어도 표준화하고 전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수화 단어도 표준화해야 한다.

한국어는 조사와 어미의 변화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나 수화에는 조사와 어미가 몇 개밖에 없고 어미변화가 없으며, 수화에는 이를 적는 문자가 없다. 그러므로 수화 사용자는 한국어 문장을 배우기가 대단히 어렵다. 농인이 한국어 문장을 잘 배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수화에 의한 한국어 문장 지도 방법을 연구하고 교재를 개발하여 한국수화에 의한 한국어 문장 지도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 농인이 사용하는 수화와 북한 농인이 사용하는 수화는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농인과 북한 농인이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고, 남북의 수화가 발전되게 하고, 수화 통일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남북 수화의 공동 연구부터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제7차 교육과정을 보면 선택 교과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

6 연구방법

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8개 외국어가 외국어 교과로 편성되어 있다. 이러한 외국어 관련 수화 중에서 번역 또는 편찬된 수화는 「일본어-수화사전」과 「한국어-스페인 수화사전」 뿐이다. 농 학생이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외국어로 전달되는 정보를 얻고,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함인데, 농인이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외국어보다 외국 수화가 더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외국어에 해당하는 수화 중에서 아직 번역하지 못한 수화를 우선 번역·출판해야 한다.

표준화된 수화의 보급과 교육을 위해서는 농인, 농인의 가족, 농학교 교사, 수화 통역사 등을 대상으로 수화 연수를 해야 하며, 이에 앞서 표준화된 수화 교본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수화 교육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한국수화 연수원을 개설하여 지원하고, 수화 동아리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외국에서 한국수화를 사용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수화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외국에 보급해야 하며, 수화를 사용해야 할 곳에서 표준화된 수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곳의 수화 사용 실태와 문제를 조사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한국어 중심의 수화 사전을 편찬하였다. 수화 단어의 뜻풀이나 쓰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수화 중심의 ‘한국수화-국어사전’을 편찬해야 한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2006년도 말로 종료된 제1단계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확정하고, 이 제2단계 사업을 추진할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연도별 사업 계획을 세우고, 2007년도에는 (1) 한국수화 표준화 사업, (2) 한국수화에 의한 한국어 문장 지도 교재 개발 사업, (3) 한국어-미국수화 사전 편찬 및 출판 사업, (4) 한국수화 교재 (제1권) 개발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5) 수화로 하는 애국가·국기에 대한 맹세·한글날 노래의 표준화 사업도 하기로 하였다.

농인들은 애국가·국기에 대한 맹세·한글날 노래 등을 수화로 할 수 있으며 애국가와 국기에 대한 맹세는 지금도 수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수화로 표준화된 것은 없다. 농인이 이들을 어디서나 같은 수화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해야 한다.

연구방법

수화로 하는 애국가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표준화하기 위해서 한국농아인협회의 16개 시도협회와 23개 농학교를 대상으로 수화로 하는 애국가와 국기에 대한 맹세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된 14개 단체의 자료를 정리하였으며, 정리된 자료에 대한 의견 조사서를 작성

하였다. 의견 조사서는 애국가와 국기에 대한 맹세의 어절별로 정리된 수화의 적절성 여부를 표시하고,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적을 수 있게 구성하였다.

조사서는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이하에서는 추진위원이라 한다) 20명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의 의견을 조사서에 적어 제출하게 하였으며, 제출된 조사서를 분석·정리하여 연구실무위원회에 상정하였다.

연구실무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자료를 검토하기 앞서 애국가와 국기에 대한 맹세의 연혁을 알기 위해 문헌 연구를 하였으며, 애국가 가사의 뜻을 알기 위해 언어학자에게 애국가의 뜻풀이를 의뢰하였다. 애국가와 국기에 대한 맹세를 수화로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연혁과 애국가 가사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했기 때문이다.

연구실무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자료, 애국가와 국기에 대한 맹세의 연혁, 애국가의 뜻풀이 등을 가지고 토론을 통하여 애국가 가사와 국기에 대한 맹세의 수화 시안을 작성하였으며, 시안을 한국농아인협회 16개 시도협회와 5개 농학교에 배포하고 그 시안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연구실무위원회에서는 조사된 21개 단체의 의견을 정리하고 재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개정안을 2명의 농인(이하에서는 수악인이라 한다)에게 주고 애국가는 그 곡조에 맞추어 표현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는 그 배경 음악에 맞추어 표현하는 연습을 하게 하였다.

연구실무위원회에서는 간헐적으로 수악인(手樂人)을 불러 수화로 애국가와 국기에 대한 맹세를 시험적으로 해보게 하며 표현이 적절치 않거나 곡조에 맞지 않는 단어를 수정하여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수화로 하는 한글날 노래도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 표준화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연구실무위원회에서 수화로 하는 한글날 노래 시안을 마련하여 조사서를 작성하였다. 수화로 하는 한글날 노래는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애국가 연혁 대신 한글날 노래의 연혁을 알아보았으며, 애국가처럼 뜻풀이를 하지 않아도 수화로 표현하는데 문제가 없으므로 뜻풀이를 따로 하지 아니하였다.

최종안을 가지고 ‘수화로 하는 애국가·국기에 대한 맹세·한글날 노래 표준화 연구 발표회’를 가졌다. 이 발표회에는 한국농아인협회 시도협회, 한국농아인협회 노인회, 농아인교회, 장애인 복지시설, 기타(수화 통역사, 농아 대학원생) 등에서 153명이 참가하였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이들에게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연구 결과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애국가」 가사의 표현 중 둘(‘백두산’의 ‘산’, ‘보전하세’)과 「한글날 노래」 가사의 표현 중 셋(‘세종대왕’의 ‘왕’, ‘그 속에’의 ‘속’, ‘으뜸이도다’의 ‘으뜸’)을 수정하여 표준화 작업을 완료하였다.

수화로 하는 애국가

국가(國歌)는 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노래이다. 우리나라 국가는 애국가(愛國歌)이다. 애국가는 20세기 초엽 민간에 퍼져 있었으며 미주에서 부른 가사에 1935년에 안익태가 곡을 붙였으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더불어 국가로 결정되었다.

1. 애국가의 연혁

우리나라는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1882년에는 미국과 영국, 1883년에는 독일, 1884년에는 러시아와 이탈리아, 1886년에는 프랑스 등 서구 열강과 수호 조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문물을 접하게 되면서 개화에 눈을 뜨게 되었으며, 1896년 이후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 되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구하려는 애국 운동의 일환으로, 국기에 경례하고 애국가를 제창하자는 독립협회의 ‘국민의례운동’(國民儀禮運動)에 발맞추어, 애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많은 창가가 도처에서 만들어졌다(廉敬淑, 2001; 吳世昌, 1976; 李明花, 1999).

이러한 창가들은 주로 獨立新聞(독립신문)과 大韓每日申報(대한매일신보), 唱歌冊(창가책) 등에 소개되었다(國史編纂委員會, 1955). 서재필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1896년 4월 7일 창간한 독립신문은 그 한 해 동안에도 10편이나 되는 서로 다른 애국가를 실었고 곳곳에서 애국가를 불렀다는 기사도 ‘잡보’란에 실었으며, 사설에서 애국가의 필요성과 통일된 애국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기사와 입장은 당시 애국가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으며, 국민들에게 애국심과 독립심, 계몽사상을 고취하였다(이유선, 1985).

이 무렵에 만들어진 창가 중에서 애국가로 분류되는 창가에는 「무궁화가」도 있었다. 이 창가는 1899년 6월 배재학당 방학 예식에서 불렸고, 1899 6월 29일 독립신문에 소개되었는데, 그 후렴은 현행 애국가의 후렴과 같다. 「황실가」라고도 부른 「무궁화가」는 일부 수정되어 1907년 10월 30일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되었는데 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國史編纂委員會, 1955; 吳世昌, 1976).

- 一. 聖子神孫 五百年은 우리 皇帝이요
山高水麗 東半島는 우리 本國일세
〈後敎〉 無窮花 三千里 華麗江山
大韓 스람 大韓으로 길이 保全호세
- 二. 忠君호는 一片丹心 北岳 곳치 높고
愛國호는 熱心義氣 東海 곳티 기페
- 三. 千萬人 오죽 한마음 나라 스랑호여
士農工商 貴賤 업시 職分만 다 호세
- 四. 우리 나라 우리 皇室 皇天이 도으샤
國民 同樂 萬萬歲에 泰平 獨立호세

1902년 1월 27일에는 고종(高宗)이 국가(國歌)의 제정을 명하였으며, 동년 8월에는 윤치호(尹致昊)가 작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사에 1901년 국악대장으로 초청되어 온 독일인 에케르트(Franz Eckert)가 곡조를 붙인 「대한제국 애국가」라는 이름의 애국가도 만들어져 나라의 중요 행사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국가는 황제의 위엄과 권위를 높이는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고, 가사는 당시의 민족적인 정서에 부합하지 못하였으며,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더 이상 부를 수 없는 금지곡이 되었기 때문에 깊게 뿌리내리지 못하였다(김강하, 1992; 廉敬淑, 2001).

이 무렵 「무궁화가」의 음률과 후렴을 살리고 그 밖의 가사를 고친 것으로 보이는 변형들이 나타났다. 1903년에 필사된 「幾說」(기설)이라는 필사본에 실린 「애국충성가」도 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황제에 대한 충성을 담고 있지만 현행 애국가 가사의 원형으로 연도가 가장 앞서는 것 같다(李明花, 1999).

애국충성가

1. 東海水와 白頭山에 히듯고 달쓰니
臣民이 保互호샤 우리나라 萬歲
(후렴) 無窮花 三千里 華麗江山
大韓사름 大韓에서 길이 忠誠하시
2. 南山樹와 靑松竹은 절개도 늦프니
風雨霜露 不變호은 우리 氣象일시
3. 春夏秋冬 四季節은 分明코 밧그너

10 수화로 하는 애국가

一片丹心 忠國誠은 우리 가슴일식

4. 天地臣民 忠誠心은 다할길 널브너

자나깨나 愛國心은 우리 皇帝일식

「애국충성가」가 구전되어 오면서 가사 일부가 고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애국가가 나타났다. 1907년 윤치호 작으로 필사한 애국가의 가사도 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 필사본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의 애국가 가사와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현재의 애국가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 ㄱ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토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 후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 ㄴ 남산 우혜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듯
바람이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 ㄷ 가을 하늘 공활한데 구름 업시 높고
밝은 달은 우리가슴 일편단심일세
- ㄹ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윤치호는 애국가를 1907년에 발간한 특별 찬미가집 제1장에도 실었고, 1908년에 발행한 재판에도 그 14장에 실었으며, 1915년경에 윤치호가 원장으로 있던 개성 한영서원(韓英書院)에서 발행한 「창가책」에도 실었다(國史編纂委員會, 1955: 吳世昌, 1976: 李明花, 1999).

1908년 재판에 수록된 애국가는 필사본 제1절의 ‘마르고’를 ‘말으고’로, 제4절의 ‘충성을 다하여’를 ‘넉금을 섬기며’로 적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필사본의 가사와 일치한다. 1915년경에 발행한 「창가책」에 수록된 애국가는 재판 제1절의 ‘보호하사’가 ‘보호하사’로, ‘우리 대한’이 ‘우리나라’로, 제2절 ‘우혜’가 ‘우에’로, ‘저’가 ‘더’로, ‘두른 듯’이 ‘둘은 듯’으로, 제3절 ‘우리 가슴’이 ‘우리 기상’으로 적혀 있을 뿐 재판의 내용과 다름없다.

윤치호는 애국가를 다 쓰고 나서 그의 찬미가 책에 1907년을 작사 연도로 썼으나 작사한 해는 이보다 수년전이며 그 정확한 날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였다(鄭光鉉, 1955). 재판된 「찬미가」에는 무궁화가와 애국가가 같이 실려 있었으며, 이 두 노래는 스코틀랜드

의 민요인 「Auld Lang Syne」(올드랭자인) 곡조로 부르게 되어 있었다. 이것으로 그 때에는 이 두 창가가 같이 불리었음을 알 수 있다(李明花, 1999).

애국가의 가사는 기록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상과 같은 기록 때문에 애국가의 작사자는 윤치호라고 한다. 그러나 애국가 작사자는 윤치호라는 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창호(安昌浩)라는 설도 있고 최병헌(崔炳憲), 김인식(金仁湜), 또는 민영환(閔泳煥)이라는 설도 있다(國史編纂委員會, 1955).

이러한 기록만을 보아서는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 가사는, 작사자가 누구라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워도,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있던 1903년 이후 1907년 이전에 만들어졌으며, 조국애와 충성심을 북돋우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같다.

미주에서는 1910년대 중반까지도 「무궁화가」가 애국가처럼 불리었으나 점차 현행 애국가 가사로 바뀌어 불리게 되었다. 1912년 12월 안창호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에 선임되고, 중앙총회 제1차 대표원회가 개최될 때 국기를 향한 경례와 함께 애국가를 봉창하였다. 이때부터 미주에서는 현행 애국가와 같은 내용의 가사로 불리었으며, 만주에서도 1914년 무렵에 현행 애국가와 같은 내용의 가사로 불리었다. 애국가는 1920년을 전후해서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재중 재미 독립운동 단체들이 삼일절 기념행사를 비롯한 모든 행사에서 불렀으며, 계속해서 '올드랭자인' 곡조로 불렸다(李明花, 1999).

전정임(1998)의 저서와 허영한(2006)의 논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는 미주에서 부른 가사에 안익태가 곡을 붙인 것이다. 안익태는 일본 동경 국립음악학교에서 첼로를 전공하고 일시 귀국하였다가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가 1930년 가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여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한인교회였으며, 그날 저녁 그곳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연주에 앞서 참석한 20여명의 동포와 같이 애국가를 불렀다. 그러나 그는 어떤 나라에서는 사랑가로 불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이별가로 불리는, '올드랭자인' 곡조로 애국가를 부르는 것은 수치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곡조의 애국가를 작곡하기로 결심하였으며, 1935년 11월 필라델피아에서 애국가의 작곡을 완성하고 그 이름을 「동해물과 백두산 곡」이라 하였다.

이 애국가는 1936년 2월 5일 샌프란시스코 대한인국민회에서 「대한국 애국가」라는 이름으로 출판하였으며, 출판된 애국가 악보가 판매되면서 우리 교포가 살고 있는 미국 전역에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대한인국민회에서는 출판한 애국가 악보를,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중경 임시정부로 보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대한민국 22년(서기 1940년) 1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그 사용을 허가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방송하는 등 보급 운동을 전개하였다. 임시정부에서는 광복 직후인 1945년 11월 12일 이를 「한국애국가」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였는데 그것에는 중국어 가사와 영어 가사도 같이 첨가되어 있었다.

그러나 애국가 악보는 국내에는 들어오지 못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일제의 삼엄한 감시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애국가를 광복 이후 정부 수립 무렵까지도 ‘올드랭 자인’ 곡조로 부르고 있었다.

안익태가 작곡한 애국가는 1946년 5월 배민수 목사가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처음으로 가져왔으며, 그 때에 ‘중등음악교과서 편찬위원회’가 펴내고 국제음악문화사에서 출판한 「임시 중등음악 교본」에 첫 번째 곡으로 실렸다. 이 책은 5만부가 소화되었다고 하므로 국내에서 안익태 작곡 애국가가 널리 퍼진 것은 이 무렵일 것으로 생각된다.

애국가는 용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 피아노 반주로 된 원곡이 있고, 아무런 반주 없이 부르는 것과 악기만으로 연주되는 것이 있다. 반주가 있는 경우에는 네 마디의 전주가 있고, 악기만으로 연주되는 경우에는 전주가 없다. 작곡자는 「애국가」의 선율을 그의 대표적인 교향곡인 「한국 환상곡」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요 주제로 사용하고 있다.

2. 애국가의 작곡가 안익태

안익태는 1906년 12월 5일 평양에서 태어났으며, 평양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숭실중학교에 진학하였으며, 그 다음해인 1919년에 삼일 운동 관련 수감자 구출 운동에 가담하여 퇴학을 당하였고, 일본으로 건너가 1921년에 동경 세소쿠중학교에 진학하여 5년간의 중학 과정을 마치고, 1926년부터 4년 동안 동경 국립음악학교에서 첼로를 전공하였다. 졸업 후 귀국하여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수차의 연주를 하였으며, 1930년 미국으로 건너가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신시내티로 가서 신시내티 음악원에 진학하고, 1933년에는 필라델피아 커티스 음악원과 템플대학교 음악대학원에 진학하였다. 그는 신시내티 시립 교향악단의 제1 첼로 주자로 활동하였으며, 애팔래치안 관현악단을 지휘하였다.

1936년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바인가르트너(Felix Weingartner)에게 지휘법을 사사하였으며, 1937년 2월 헝가리 리스트 음악원에서 도나니(Ernst von Dohnani)와 코다이(Zoltan Kodaly)에게 작곡과 지휘를 사사하였다. 그 후 미국으로 돌아가 1937년 6월에 템플대학교 음악대학원에서 음악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유럽으로 이주하여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립음악학교의 특별연구생이 되었다.

1936년부터 1959년 사이에는 헝거리 · 독일 · 루마니아 · 불가리아 · 이탈리아 · 프랑스 · 오스트리아 · 영국 · 스페인의 저명 교향악단을 지휘하였으며, 음악의 불모지였던 마요르카 섬으로 이주하여서는 ‘마요르카 교향악단’을 창단하고 창단 연주회와 고별 연주회도 가졌다.

그는 지휘자이면서 작곡자로 많은 곡을 작곡하였으며 편곡도 하였다. 그의 작곡 중에서

악보가 남아있는 곡은 「애국가」 외에도 「한국 환상곡」 환상적 교향곡(1936~1937), 「강천성악」 교향시(1936), 「논개」 교향시(1962), 「애국지사 추도곡」 관현악곡(1962), 「흰백합화」 성악곡 및 현악독주곡(1962?), 「한국 무곡」 관현악곡(1963), 「한국의 생활」 모음곡 성악곡(1934~1935) 등이다.

그는 1955년 3월 19일 25년 만에 처음으로 고국을 방문하여 자작곡 「한국 환상곡」을 지휘하고 문화포장을 받았으며, 1959년에도 귀국하여 자작곡을 연주하였다. 그 후에는 서울시민회관에서 3회의 국제음악제를 개최하였다. 제1회(1962. 5)는 정부가 주관하였으나, 제2회(1963. 5)와 제3회(1964. 5)는 직접 주관하였다.

그는 1965년 9월 1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병원에서 별세하였다. 정부는 그해 10월 15일 문화훈장 대통령장(大統領章)을 추서하였고, 1977년 7월 유해를 봉환하여 국립묘지 제2유공자 묘역에 안장하였다.

이러한 안익태 관련 내용은 전정임(1998)의 저서와 허영한(2006)의 논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3. 애국가의 뜻풀이

애국가 가사의 뜻풀이를 잘못하면 수화로 표현된 가사가 잘못 될 수 있다. 애국가 가사를 수화로 적절히 표현하기 위해서 국어학자와 한국어사전의 도움을 받아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제1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의 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을 때까지 하느님이 보호하고 도와주셔서 우리나라가 영원히 살아 길이 번영하기를 기원한다.

제2절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남산(鬯山)에 있는 소나무가 쇠로 만든 갑옷을 입은 듯이 바람과 서리에도 변하지 아니함은 우리가 타고난 곧고 굳센 기개(氣概)와 의용(義容) 같다.

제3절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가을 하늘이 매우 넓고 탁 트여 높고 구름 한 점 없음과 밝은 달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않는 우리의 마음이다.

14 수화로 하는 애국가

제4절 이 기상과 이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우리가 타고난 곧고 굳센 기개와 의용으로 진정에서 우리나라의 정성을 다 바쳐 나라에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자.

후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반만년의 역사를 누리면서 살아온 빛나고 아름다운 무궁화 강산을 우리 대한 사람이 대한 나라로 오래도록 온전하게 잘 지켜나가자.

4. 애국가의 제창 · 연주

애국가는 주로 식전(式典)에서 연주 · 제창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절까지 제창한다. 애국가는 모두 함께 부르는 경우에는 전주곡을 연주하지만,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연주만 하는 의전 행사나 시상식, 공연 등에서는 전주곡을 연주하지 않는다.

애국가는 나라 사랑을 일깨우고 다짐하기 위하여 온 국민이 부르는 노래이므로, 애국가를 부를 때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정중하게 부른다. 애국가는 정확한 가사와 곡조를 익혀 부르며 애국가의 곡조에 다른 가사를 붙여 부르거나, 곡조를 변경하여 부르지 않는다. 애국가를 들을 때에는 바른 자세로 서서 경청한다.

5. 수화로 하는 애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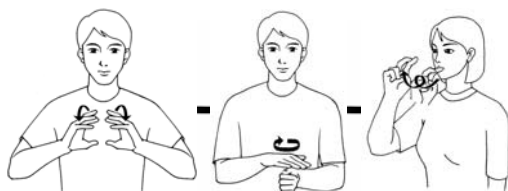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 특수학교인 국립맹아학교(1959년 서울맹학교와 서울농아학교로 분리되기 전의 학교)는 1950년 육이오 전쟁이 일어나자 휴교하였으며,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이루어 지자 동년 9월에 다시 문을 열었다. 애국가는 1948년 8월 15일에 국가로 결정되었지만, 1947년부터 1953년 사이에 국립맹아학교에 진학한 주신기 · 김기범 · 안세준 · 나수웅 등(2007. 9. 28.)에 의하면, 국립맹아학교에서는 육이오 전쟁 이전에는 애국가를 수화로 하지 않았으며, 1956년 3월 27일 졸업식에서 수화로 애국가를 한 것은 분명함으로 ‘수화로 하는 애국가’는 휴전 다음 해인 1954년 아니면 1955년에 만들어 졌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수화로 하는 애국가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았다.

서울선회학교(현 서울농학교) 1종도서 연구개발위원회에서는 1993년에 「특수학교(청각장애) 중학부 수화 1」을 편찬하면서 그 앞머리에 수화로 하는 「애국가」를 실었다. 이 책의 저작권자는 교육부이므로 이 책에 수록된 수화로 하는 「애국가」는 교육부가 표준

으로 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수화로 하는 애국가 표준화 이전에 전국 각지에서 해온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는 일치하지 않으므로(표 1; 부록 1) 중학부 수화 1에 수록된 「애국가」는 표준화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전국 어디서나 같은 수화로 애국가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수화로 하는 애국가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애국가의 연혁을 알기 위한 문헌 연구, 국어학자와 국어사전에 의한 애국가 가사의 뜻풀이, 한국농아인협회 시도협회와 농학교의 검토, 추진위원의 검토, 연구실무위원의 검토와 토론, 농인의 애국가 시연, ‘수화로 하는 애국가·국기에 대한 맹세·한글날 노래 표준화 연구 발표회’에 참석한 농인과 수화통역사의 의견 수렴 등 표준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얻은 표준화 된 ‘수화로 하는 애국가’는 다음과 같다.



애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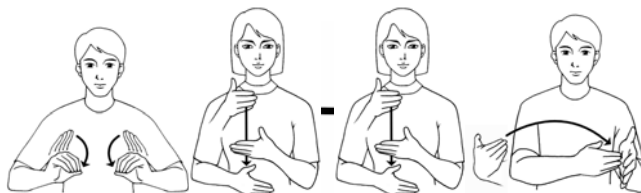
보통빠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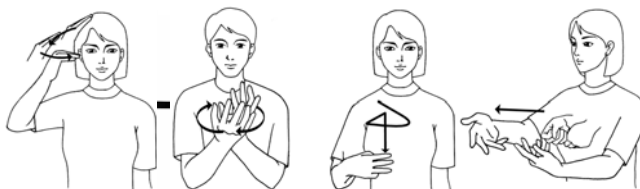


1. 동 해 물 과 백 두 산 이



마 르 고 님 도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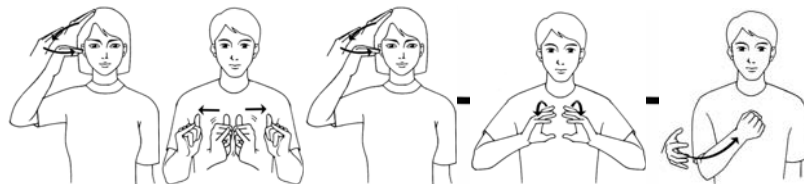




화 려 강 산



대 한 사 람 대 한 으 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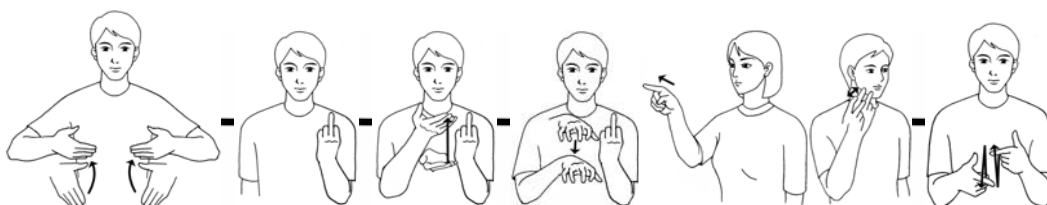
길 이 보전 하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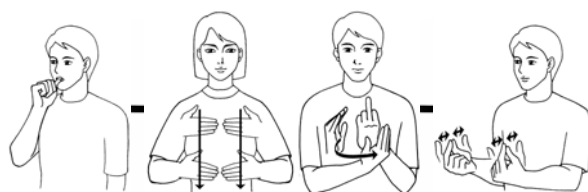
보통빠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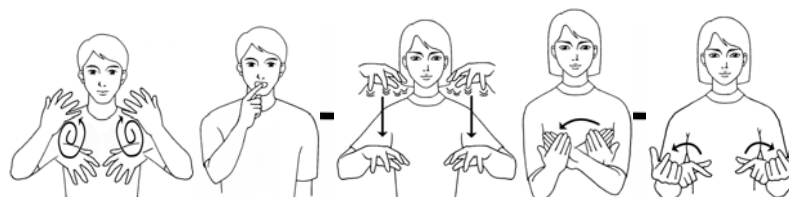
2. 남 산 위 에 저 소 나 무



철 갑 을 두 른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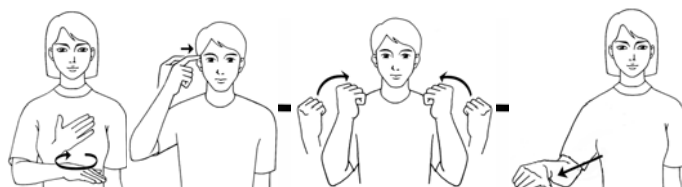


바 람 서 리 불 변 함 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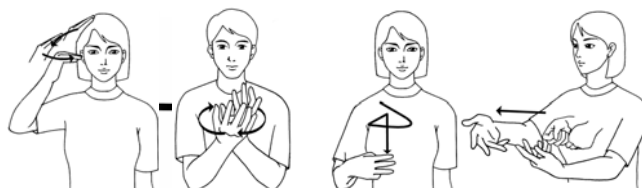




우 리 기 상 일 세



무 궁 화 삼 천 리



화 려 강 산





대 한 사 람 대 한 으 로



길 이 보전 하 세



보통빠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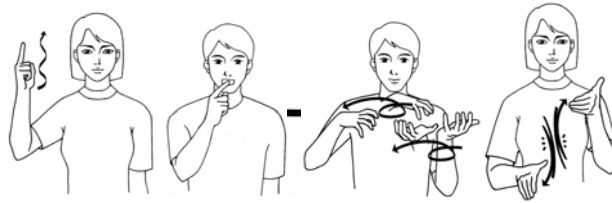


3. 가 을 하 늘 공 활 한 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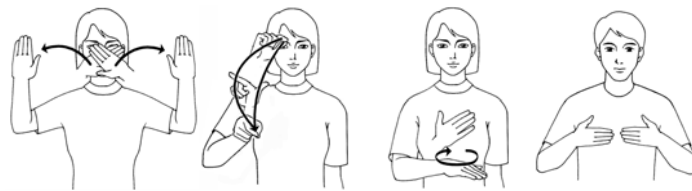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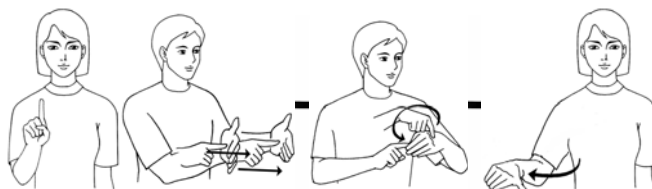
높 고 구름 없 이



밝 은 달 은 우 리 가 스



일 편 단심 일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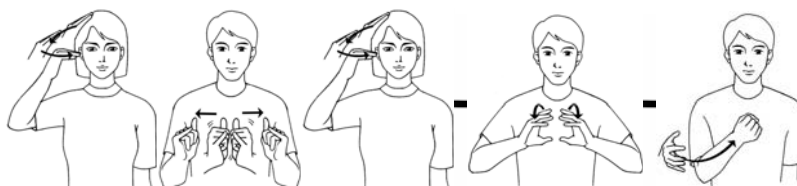
무 궁 화 삼 천 리



화 려 강 산



대 한 사 람 대 한 으 로





길 이 보전 하 세



보통빠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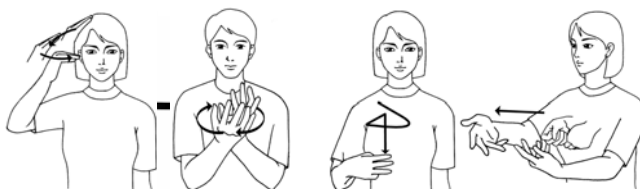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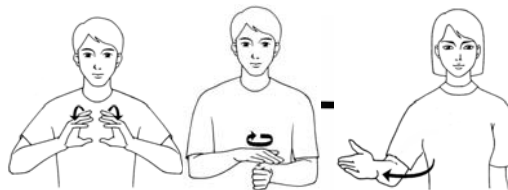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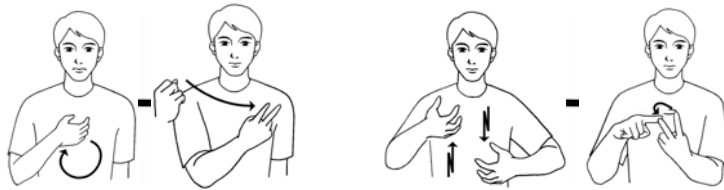


4. 이 기 상 과 이 맘 으 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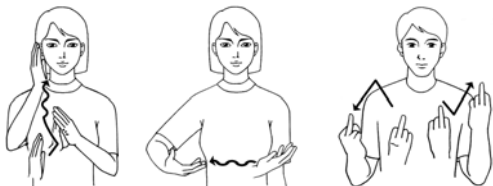
충 성 을 다 하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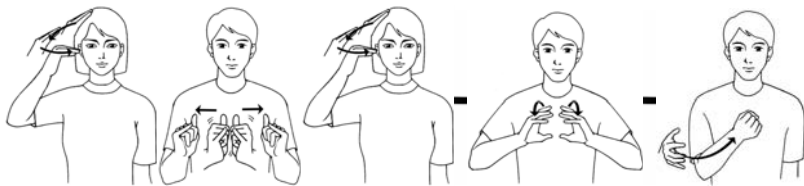




화 려 강 산



대 한 사 람 대 한 으 로



길 이 보전 하 세



6. ‘애국가’를 구성하는 수화 어절의 어원 정보 · 그림 · 설명문

‘애국가’의 가사를 구성하는 수화 어절을 이해하는 데는 각 어절의 어원 정보가 도움이 되고, 그림으로 제시한 ‘애국가’ 가사의 수형 · 수동 · 수향 등을 이해하는 데는 각각의 설명문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애국가를 구성하는 어절 중에서 어원 정보가 필요한 어절에 한해서 【 】 속에 어원 정보를 제시하였으며, 각 어절의 그림과 그림을 설명하는 설명문을 그림 밑에 제시하였다. 어절의 순서는 ‘애국가’ 가사의 어절 순이며, 후렴의 어절은 한번만 제시하였다.

수화의 설명에 손가락을 사용할 때에는 손가락의 이름 대신 손가락의 번호를 사용하였다. 사용한 손가락의 번호는 다음과 같다.

집게손가락: 1지 약손가락: 3지 엄지손가락: 5지
가운뎃손가락: 2지 새끼손가락: 4지

애국가

【나라+ 사랑+ 노래】



두 손의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세워 밖으로 약간 돌린 다음, 5지 바닥을 1지 옆면에 대고 손등이 왼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주먹 위에 오른 손바닥을 대고 오른손만 오른쪽으로 돌린 다음,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반쯤 구부려 입 앞에서 돌리며 밖으로 올린다.

동해물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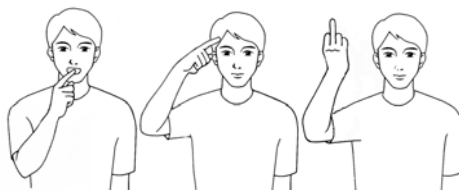
【동해+ 파】



왼팔을 손등이 위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두고, 그 손바닥 밑에서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천천히 위로 올리고, 손등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두 손을 상하로 흔들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시킨 다음,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등이 위로 향하게 하고, 끝 부분의 양면을 왼 주먹의 1·5지 끝으로 잡는다.

백두산이

【하양+ 머리+ 산】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치아를 가리키고, 그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댄 다음, 오른쪽 밖으로 오른 주먹의 2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약간 올려 세운다.

마르고

【마르다】



손끝이 약간 위로 향하게 편 두 손의 5지에 1·2·3·4지를 모아 댄다.

맑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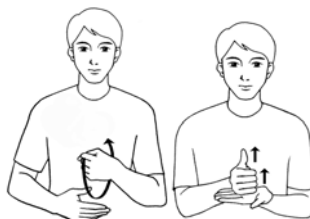
【빼다+ 빼다+ 이르다】



왼손을 펴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우고, 그 바닥을 손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의 손등으로 스쳐 내리는 동작을 두 번 한 다음,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오른쪽으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고, 오른손을 약간 구부려 끝을 오른쪽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왼 손바닥에 가져다 대는 동작을 천천히 크게 한다.

하느님이

【하느님】



오른손을 펴서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모로 세운 왼 주먹 주위를 밖에서 부터 안으로 돌려 올리며 주먹을 쥐고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바닥에 올려놓고 두 손을 약간 올린다.

보우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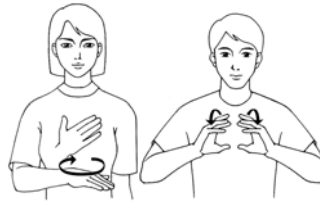
【살피다+ 받다】



오른 주먹 1·2지를 펴서 반쯤 구부려 끝이 두 눈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으로 한 바퀴 돌린 다음,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두 손을 안으로 당긴다.

우리나라

【우리+ 나라】



오른 손바닥을 가슴에 댔다가 손등이 위로 향하게 하여 오른쪽으로 한 바퀴 크게 돌린 다음, 두 손의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세워 밖으로 약간 돌린다.

만세



손등이 아래로 향하게 가볍게 쥔 두 주먹을 위로 천천히 올리며 손가락을 활짝 편다.

무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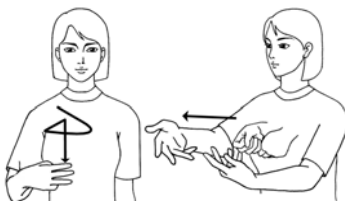
【대한민국+ 꽃】



오른 손바닥으로 머리 오른쪽을 스쳐 내리며 손바닥을 구부려 끝을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약간 구부린 두 손의 손목을 'X'자로 맞대고 손목을 돌려 두 손의 손바닥이 마주 보게 한다.

삼천리

【삼천+리】



오른 주먹의 1·2·3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千(천)’자를 쓴 다음, 손등이 아래로 향하게 자연스럽게 쥔 두 주먹을 가슴 앞에서 전후로 맞대고 1·2·3·4·5지 순으로 손가락을 펴며 밖으로 내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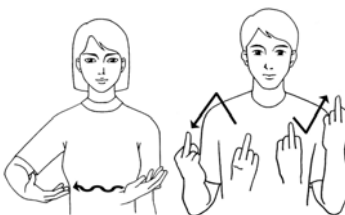
화려



손끝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 손바닥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탁 치고 손목을 가볍게 좌우로 흔들며 위로 올린다.

강산

【강+산】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상하로 약간 흔들며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다음, 두 주먹의 2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동시에 약간씩 올렸다 내렸다 하며 양옆으로 벌린다.

대한

【갓을 구성하는 동작】



오른 손바닥으로 머리 오른쪽을 스쳐 내리며 손바닥을 반쯤 구부려 끝을 머리 오른쪽에 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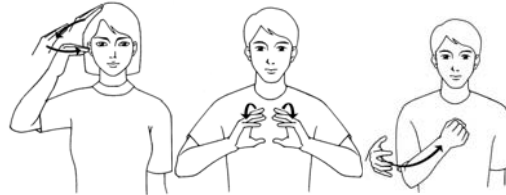
사람



두 주먹의 4·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맞대고 세워 양옆으로 두 번 약간 돌리며 벌린다.

대한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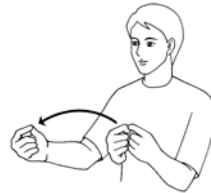
【갓을 구성하는 동작 + 나라 + 가지다】



오른 손바닥으로 머리 오른쪽을 스쳐 내리며 손바닥을 반쯤 구부려 끝을 머리 오른쪽에 대고, 두 손의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세워 밖으로 약간 돌린 다음, 손바닥이 왼쪽으로 손가락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안으로 당기며 주먹을 쥐다.

길이

【영원히】



두 주먹의 1·5지 끝을 맞댔다가 오른 주먹만 밖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내민다.

보전하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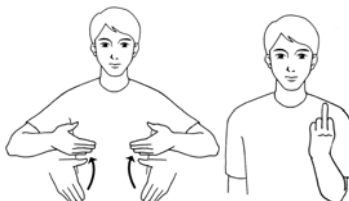
【살피다+ 전승/하세】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반쯤 구부려 끝이 두 눈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으로 한 바퀴 돌린 다음, 오른손은 손끝이 오른쪽 관자놀이 뒤로 향하게 하고 왼손은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오른손 약간 아래에 놓이게 하여 두 손을 동시에 밖으로 내밀면서 오른손을 주먹을 쥐며 왼 손바닥에 접근시키다가 두 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벌리며 내민다.

남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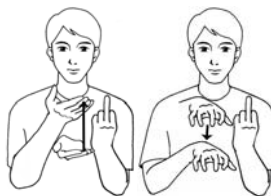
【따뜻하다+ 산】



두 손바닥으로 배를 스쳐 올린 다음, 왼 주먹의 2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위에

【산 위+ 곳】



왼 주먹의 2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오른쪽에서 오른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왼 주먹의 2지 끝 높이까지 올렸다가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돌려 반쯤 구부려 약간 내리다가 멈춘다.

저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약간 위로 내민다.

소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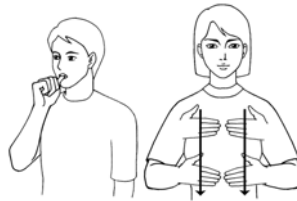
【솔잎이 찌르는 것
을 나타내는 동작+
나무】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구부려 끝을 오른쪽 볼에 두 번 댄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를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부딪친다.

철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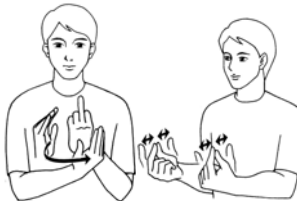
【쇠+ 갑옷】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끝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끝을 살짝 문 다음, 두 손을 펴서 손끝을 양쪽 가슴에 댔다가 아래로 내린다.

두른 듯

【두르다+ 같다】



펴서 세운 오른손을, 2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왼 주먹을 감싸듯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린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1·5지를 두 번 맞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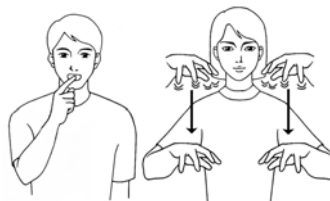
바람



두 손을 벌려 손등이 위로 향하게 하였다가 안으로 두 번 돌려 올린다.

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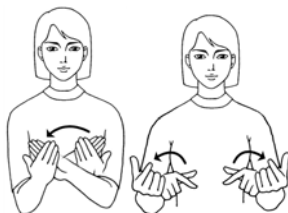
【하양+ 서리가 내리는 동작】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치아를 가리킨 다음, 손등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두 손의 손가락을 번갈아 가볍게 움직이며 눈앞에서 아래로 내린다.

불변함은

【변화+ 아니다】



왼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바닥을 맞대고 세웠다가 180도 돌려 세운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마주 보게 하였다가 손목을 양옆으로 돌린다.

우리



오른 손바닥을 가슴에 댔다가 손등이 위로 향하게 하여 오른쪽으로 한 바퀴 크게 돌린다.

기상일세

【정신+ 튼튼하다+ 일세】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반쯤 구부려 끝으로 머리 오른쪽을 치고, 두 주먹을 가슴 앞에서 힘주어 당긴 다음,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게 편 오른손을 오른쪽으로 약간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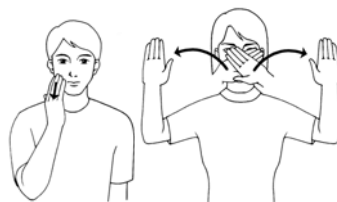
가을



두 손을 벌려 손등이 위로 향하게 하였다가 안으로 두 번 돌려 올린다.

하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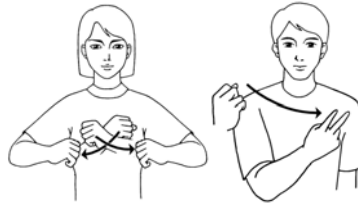
【파랑+ 밝다】



오른 손바닥으로 오른뺨을 스쳐 내린 다음, 두 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얼굴 앞에서 교차하게 하였다가 양옆으로 벌린다.

공활한데

【넓다+그리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켜 두 주먹의 손목을 'X'자로 맞댔다가 양옆으로 벌린 다음, 오른 주먹의 5지 바닥을 1·2지의 손톱에 가볍게 대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아래로 내리며 1·2지를 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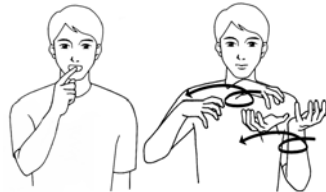
높고

【높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세워 손목을 좌우로 흔들며 위로 올린다.

구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치아를 가리킨 다음, 두 손을 약간 구부려 가슴 앞에서 상하로 마주 보게 하여 서로 엇갈리게 돌린다.

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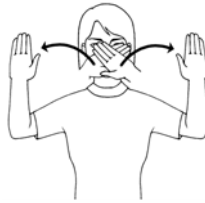
【없다】



두 손바닥을 방향을 바꾸어 서로 쳐낸다.

밝은

【밝다】



두 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얼굴 앞에서 교차하게 하였다가 양옆으로 벌린다.

달은

【달】



오른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고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내리면서 벌렸다가 좁히며 내려 다시 맞댄다.

우리



오른 손바닥을 가슴에 댔다가 손등이 위로 향하게 하여 오른쪽으로 한 바퀴 크게 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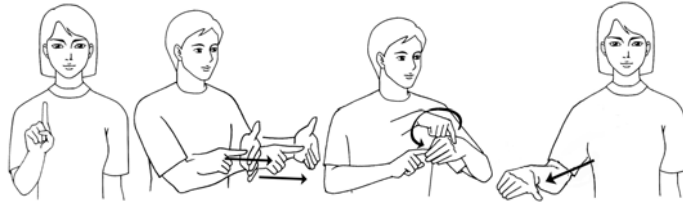
가슴



두 손을 펴서 손바닥을 양쪽 가슴에 댄다.

일편단심일세

【하나+ 추진하다+
마음+ -일세】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밖으로 내밀고, 오른 주먹의 1지 끝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댔다가 왼 손바닥에 댄 다음,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오른쪽으로 약간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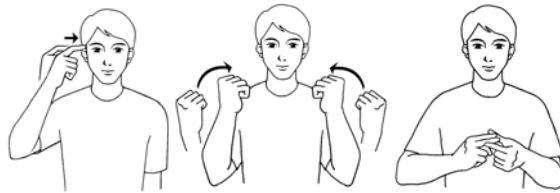
이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약간 아래로 향하게 한다.

기상과

【정신+ 튼튼하다
+ 과】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반쯤 구부려 끝으로 머리 오른쪽을 치고, 두 주먹을 가슴 앞에서 힘주어 당긴 다음,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등이 위로 향하게 하고, 끝 부분의 양면을 왼 주먹의 1·5지 끝으로 잡는다.

이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약간 아래로 향하게 한다.

맘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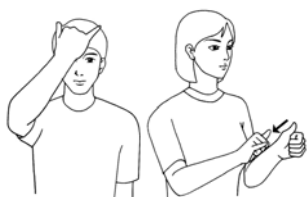
【마음+가지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댔다가 왼 손바닥에 댄 다음, 손바닥이 왼쪽으로 손가락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안으로 당기며 주먹을 쥘다.

충성을

【충성】



4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의 손가락 등을 이마에 댄 다음,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45지를 편 오른 주먹의 바닥으로 왼 주먹의
5지 등을 쓸어내린다.

다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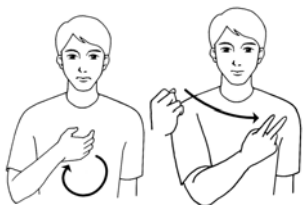
【모두+드리다】



두 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마주 댔다가 원을 그리며
내려 두 손의 4지 옆면이 닿게 한 다음,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두 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위로 올리며 밖으로 내민다.

괴로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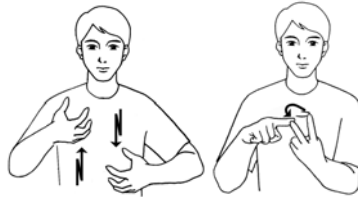
【괴롭다+또한】



약간 구부린 오른 손끝을 가슴에 대고 왼쪽으로 한 바퀴 돌린 다음, 오른 주먹의
5지 바닥을 12지의 손톱에 가볍게 대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아래로
내리며 12지를 편다.

즐거우나

【즐겁다+ 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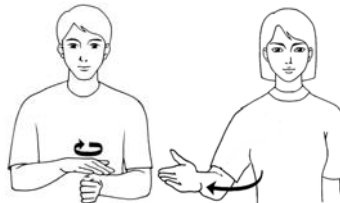
두 손의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끝을 양쪽 가슴에 대고 서로 엇갈리게 두 번 올렸다 내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 주먹의 1·2지 바닥 위쪽에 차례로 댄다.

나라

두 손의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세워 밖으로 약간 돌린다.

사랑하세

【사랑+ 하세】



5지 바닥을 1지 옆면에 대고 손등이 왼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주먹 위에 오른 손바닥을 대고 오른손만 오른쪽으로 돌린 다음,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편 오른손을 오른쪽으로 내민다.

7. 조사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와 표준화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의 일치 정도

한국농아인협회 16개 시도협회와 23개 농학교를 대상으로 ‘수화로 하는 애국가’를 조사하고, 조사된 14개 단체에서 사용하는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와 표준화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의 일치 정도를 알아보았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애국가 가사는 제1절부터 제4절까지 50개 어절로 구성되어 있다(‘우리’와 ‘이’는 각각 2회 포함하고 후렴은 1회 포함함).

조사된 50개 어절의 수화 중 15개 어절의 수화는 모두 표준화한 어절의 수화와 일치하고, 19개 어절의 수화는 일부 단체에서는 표준화된 어절의 수화와 같은 수화로 표현하고 일부 단체에서는 1~5개 형식으로 다르게 표현하며, 16개 어절의 수화는 모두 표준화한

40 수화로 하는 애국가

어절의 수화와 2~9개 형식으로 다르게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1 참조). 이러한 실태는 ‘수화로 하는 애국가’의 표준화가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조사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와 표준화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의 일치 정도

구분	어절의 수	어절
모두가 일치하는 어절	15	애국가. 우리나라. 무궁화. 사람. 길이. 저. 바람. 우리. 하늘. 높고. 구름. 밝은. 달은. 우리. 나라
일부가 일치하는 어절	19	(1) 만세. 대한. 가을. 없이. 이. 맘으로 (2) 보우하사. 이 (3) 마르고. 삼천리. 소나무. 가슴. 대하여 (4) 닳도록. 불편함은. 두른 듯. 충성을. 즐거우 나 (5) 괴로우나
모두가 일치하지 않는 어절	16	(2) 강산. 남산. 위에 (3)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느님이. 화려. 철갑 을 (4) 대한으로. 사랑하세 (5) 공활한데 (6) 보전하세. 서리. 기상일세 (8) 일편단심일세 (9) 기상과
계	50	

(괄호 속의 숫자는 달리 표현된 수화의 수임).

수화로 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

1. 국기에 대한 맹세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 1984년 2월 21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이 규정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에는 제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였고, 제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 중 모자를 쓴 사람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였으며,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벗지 아니할 수 있었고, 제복을 입은 사람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 경례를 하였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에는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도 낭송하였다

2007년 1월 26일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폐기하고 ‘대한민국 국기법’을 신규 제정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로 하고,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하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동년 7월 27일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을 신규 제정하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했던 국기에 대한 경례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3.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舉手敬禮)를 한다.”로 규정하였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도 일부 수정하여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로 규정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맹세문을 낭송하되, 애국가를 연주하는 경우에는 낭송하지 아니하며, 맹세문 낭송은 녹음물·영상물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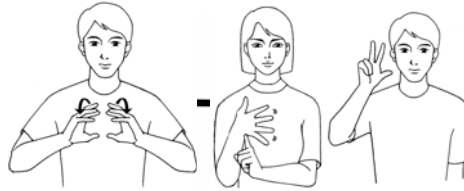
2. 수화로 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

‘수화로 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언제부터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었지만, 1984년 2월 21일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으로 국기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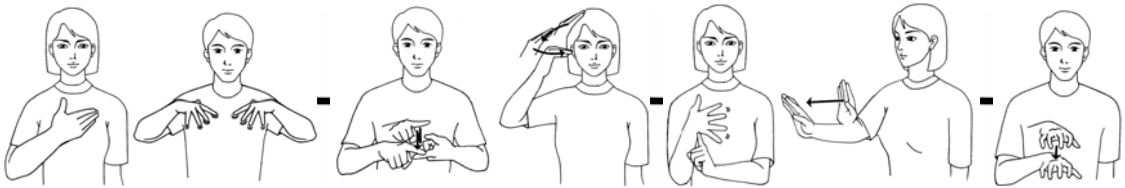
경례를 할 때에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도 낭송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수화로 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였다는 증거는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수화로 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는 표준화되지 않았던 것 같다. ‘수화로 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 표준화 이전에 전국 각지에서 해온 국기에 대한 맹세의 어절별 수화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표 2; 부록 2). 따라서 전국 어디서나 같은 수화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수화로 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표준화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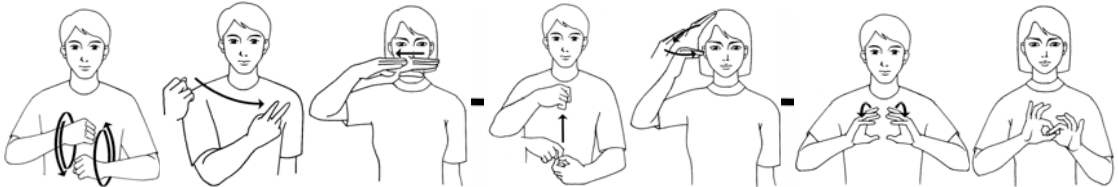
국기에 대한 맹세의 연혁을 알기 위한 법령 조사, 한국농아인협회 시도협회와 농학교의 검토, 추진위원의 검토, 연구실무위원의 검토와 토론, 농인의 국기에 대한 맹세 시연, ‘수화로 하는 애국가·국기에 대한 맹세·한글날 노래 표준화 연구 발표회’에 참석한 농인과 수화통역사의 의견 수렴 등 표준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얻은 ‘수화로 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는 다음과 같다.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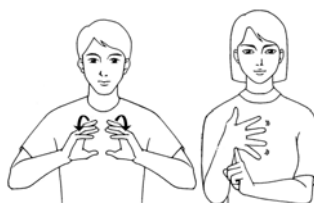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3. ‘국기에 대한 맹세’를 구성하는 수화 어절의 어원 정보 · 그림 · 설명문

‘국기에 대한 맹세’를 구성하는 수화 어절을 이해하는 데는 각 어절의 어원 정보가 도움이 되고, 그림으로 제시한 ‘국기에 대한 맹세’의 수형 · 수동 · 수향 등을 이해하는 데는 각각의 설명문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구성하는 어절 중에서 어원 정보가 필요한 어절에 한해서 【 】 속에 어원 정보를 제시하였으며, 각 어절의 그림과 그림을 설명하는 설명문을 그림 밑에 제시하였다. 어절의 순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의 어절 순이다.

국기에 (대한)

【나라+기】



두 손의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세워 밖으로 약간 돌린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끝을, 손가락을 벌려 편 오른손의 손목 밑에 대고 오른손을 좌우로 약간 흔든다.

맹세



오른 주먹의 1·2·5지를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오른쪽 어깨 위에 세운다.

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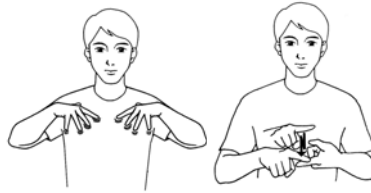
【나】



오른 손바닥을 가슴 중앙에 댄다.

자랑스러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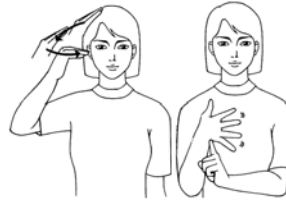
【자랑하다+ 대로】



두 손의 5지 끝을 양쪽 가슴에 대고 나머지 손가락을 상하로 흔든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댄다.

태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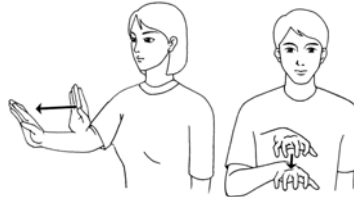
【한국+ 기】



오른 손바닥으로 머리 오른쪽을 스쳐 내리며 손바닥을 반쯤 구부려 끝을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끝을, 손가락을 벌려 편 오른손의 손목 밑에 대고 오른손을 좌우로 약간 흔든다.

앞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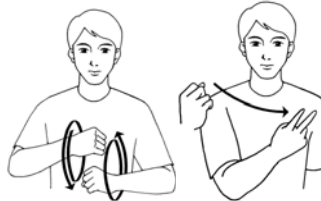
【앞+ 곳】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세운 오른 손바닥을 가슴 앞에서 밖으로 내민 다음,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반쯤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리다가 멈춘다.

자유롭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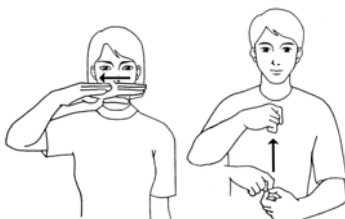
【자유롭다+ 그리고】



주먹을 쥔 두 팔을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돌린 다음, 오른 주먹의 5지 바닥을 1:2지 손톱에 가볍게 대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아래로 내리며 1:2지를 편다.

정의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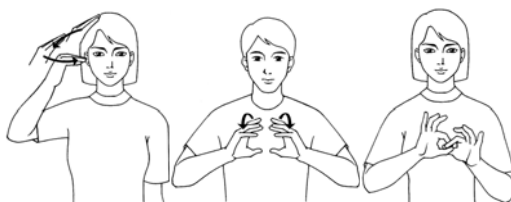
【바르다+ 정직하다】



손끝이 왼쪽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의 1지 옆면으로 코밑을 오른쪽으로 스쳐 낸 다음,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든 두 주먹을, 오른 주먹이 위에 놓이게 배에 대고 오른 주먹을 위로 올린다.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의】



오른 손바닥으로 머리 오른쪽을 스쳐 내리며 손바닥을 반쯤 구부려 끝을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두 손의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세워 밖으로 약간 돌리고, 두 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서로 낀다.

무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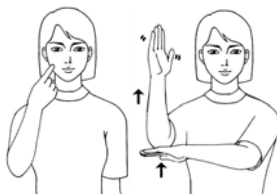
【영원하다】



두 주먹의 1·5지 끝을 맞댔다가 오른 주먹만 밖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내린다.

영광을

【영광】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오른쪽 볼에 댄 다음, 왼 손등에 손가락을 펴서 세운 오른 팔꿈치를 올려놓고 오른 손목을 좌우로 약간 흔들며 동시에 위로 올린다.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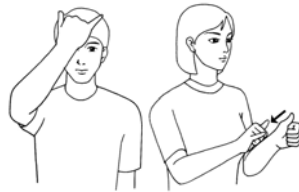
【위하다】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였다가 옆면을 돌려 낸다.

충성을

【충성】



4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의 손가락 등을 이마에 다음,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45지를 편 오른 주먹의 바닥으로 왼 주먹의 5지 등을 쓸어내린다.

다할 (것을)

【모두+드리다】



두 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마주 댔다가 원을 그리며 내려 두 손의 4지 옆면이 닿게 한 다음,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두 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위로 올리며 밖으로 내민다.

굳게

【굳다】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약간 구부려 오른쪽 어깨 높이에서 가슴 앞으로 힘주어 내린다.

다짐합니다

【다짐하다】



오른 주먹의 125지를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오른쪽 어깨 위에 세운다.

4. 조사된 ‘국기에 대한 맹세’의 어절별 수화와 표준화한 ‘국기에 대한 맹세’의 어절별 수화의 일치 정도

한국농아인협회 16개 시도협회와 23개 농학교를 대상으로 ‘수화로 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조사하고, 조사된 14개 단체에서 사용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의 어절별 수화와 표준화한 ‘국기에 대한 맹세’의 어절별 수화의 일치 정도를 알아보았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정된 ‘국기에 대한 맹세’는 16개 어절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된 16개 어절 중 개정 추가된 3개 어절을 제외한 13개 어절의 수화 중에서 3개 어절의 수화는 모두 표준화한 어절의 수화와 일치하고, 7개 어절의 수화는 일부 단체에서는 표준화된 어절의 수화와 같은 수화로 표현하고 일부 단체에서는 1~4개 형식으로 다르게 표현하며, 3개 어절의 수화는 모두 표준화한 어절의 수화와 2~4개 형식으로 다르게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2 참조). 이러한 실태는 ‘수화로 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의 표준화가 필요함을 말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조사된 ‘국기에 대한 맹세’의 어절별 수화와 표준화한 ‘국기에 대한 맹세’의 어절별 수화의 일치 정도

구분	어절의 수	어절
모두가 일치하는 어절	3	나는. 태극기. 굳게
일부가 일치하는 어절	7	(1) 맹세. 무궁한. 위하여 (2) 다짐합니다 (3) 국기에 (대한). 영광을 (4) 자랑스러운 (자랑스런)
모두가 일치하지 않는 어절	3	(2) 앞에. 다할 (것을) (3) 충성을
개정 추가 어절	3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개정 삭제 어절	(5)	조국과. 민족의. 몸과. 마음을. 바쳐
계	16(18)	

(어절란의 괄호에 들어 있는 숫자는 달리 표현된 수화의 수임).

수화로 하는 한글날 노래

1. 한글날

‘10월 9일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의 반포를 기념하기 위하여 정한 날이다. 이 날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정한 국경일이다.

조선어연구회(朝鮮語研究會)는 「세종실록」 권 113에 ‘세종 28년 9월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지다’란 기록이 있어 이 달의 끝 날인 음력 9월 29일을 ‘훈민정음 반포일’로 삼기로 하고 1926년 음력 9월 29일 훈민정음 반포 8회갑(480돌)을 맞이하여 이 날을 ‘가갸날’이라 이름하고 그 첫 기념식을 가졌다.

이 연구회는 1927 2월 8일 동인지 월간 「한글」 첫 호를 펴내고, 1928년 음력 9월 29일(11월 11일) ‘가갸날’을 ‘한글날’로 고쳤으며, 1931년 1월 10일 학회 이름을 ‘조선어 학회’로 고치고, 1934년 10월 28일, 음력 9월 29일을 그레고리오력으로 환산하여 이 날을 ‘한글날’로 다시 바꾸었으며, 음력으로 기념해 오던 한글날을 양력으로 기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45년 양력 10월 9일에는, 훈민정음 원본인 해례본(解例本)에 ‘세종 28년(1446년) 9월 상한’이라는 기록이 있어서 상순의 끝 날인 음력 9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10월 9일을 한글날로 다시 바꾸었다.

1949년 6월 4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을 제정하면서 한글날을 공휴일로 정하였다. 그러나 동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한글날은 국경일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동년 9월 25일에는 학회 이름을 ‘한글 학회’로 바꾸었다. 한글 학회와 세종대왕 기념 사업회가 주관해 오던 한글날 기념식은 1981년 535돌 한글날부터 서울시가 주관하였고, 그 다음해부터는 문화공보부(지금의 문화관광부)가 주관하였다.

1970년 6월 15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된 이 규정은 1990년 11월 5일 전면 개정하면서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제외시켰다. 이때부터 한글날은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기념일로만 남게 되었다.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후 한글학회는 ‘한글날 국경일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한글날 국경일 제정’ 청원서를 정부와 국회 등에 내고, ‘한글날 국경일 제정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한글날 국경일 추진 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한글날 국경일 제정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그러한 활동 효과가 있어서 2005년 12월 29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면서 ‘한글날 10월 9일’을 국경일로 정하였다.

2. 한글날 노래

「한글날 노래」는 한글날을 기념하는 노래이다. 이 노래는 최현배(崔鉉培)가 작사하고 박태현(朴泰鉉)이 작곡하였다. 최현배는 1894년 10월 19일 울산에서 태어났으며,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고, 1970년 3월 23일 별세하였다.

그는 경성고등보통학교(경기고등학교의 전신) 재학 중 1910년부터 3년간 주시경(周時經)의 ‘조선어 강습 원’에서 한글과 문법을 배웠다. 1919년 일본 히로시마(廣島) 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교토제국대학(京都大學) 문학부 철학과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동대학 대학원에서 1년간 수학하였다.

그는 연희전문 교수·이화여자전문 교수·조선어편찬위원회 준비위원·한글학회 상무이사·동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조선어학회’ 창립과 ‘한글맞춤법 통일안’ 제정에 참여하였다. 그의 주요 저서는 「우리말본」, 「한글 갈」, 「글자의 혁명」, 「나라 사랑의 길」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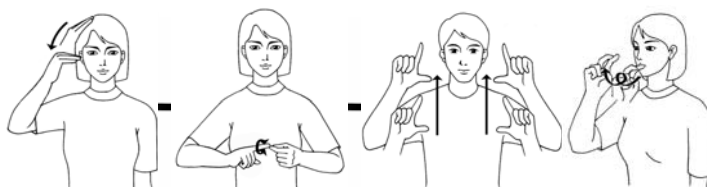
「한글날 노래」를 작곡한 박태현은 1907년 평양에서 태어났고, 1989년에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KBS 동요대상을 받았으며, 1993년 11월 6일 별세하였다. 2001년에는 그에게 ‘은관 문화훈장’이 추서되었다.

그는 숭실중학 선배인 안익태의 영향을 받아 일본 도쿄음악학교(현 도쿄음대)에서 첼로를 전공하고, 한양대·숙명여대·덕성여대 등에 출강하며, 동요 작곡가로서 「산위에서 부는 바람 서늘한 바람」, 「누가 누가 잠자나」, 「물새 발자국」,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애들이 나오너라 달 따러 가자」 등 수많은 애창 동요 곡과 가곡을 남겼다. 광복 이후에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 「삼일절 노래」와 「한글날 노래」를 작곡하였다.

3. 수화로 하는 한글날 노래

‘한글날 노래’를 수화로 하였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전국 어디서나 같은 수화로 한글날 노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수화로 하는 한글날 노래’를 표준화해야 한다.

한글날 노래의 연혁을 알기 위한 문헌 연구, 연구실무위원의 ‘수화로 하는 한글날 노래’ 시안 작성, 한국농아인협회 시도협회와 농학교의 검토, 추진위원의 검토, 연구실무위원의 검토와 토론, 한글날 노래 시연, ‘수화로 하는 애국가·국기에 대한 맹세·한글날 노래 표준화 연구 발표회’에 참석한 농인과 수화통역사의 의견 수렴 등 표준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얻은 ‘수화로 하는 한글날 노래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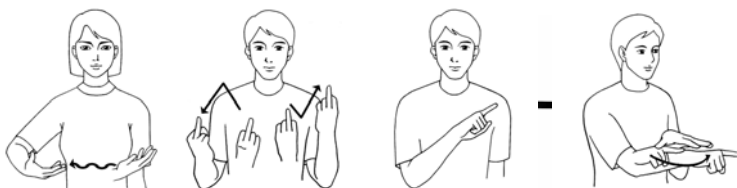


한글날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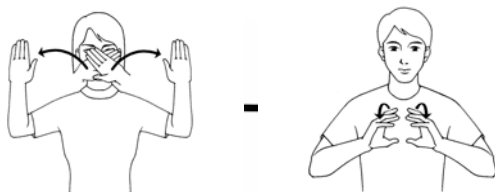
보통빠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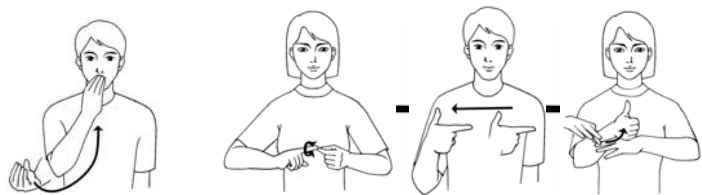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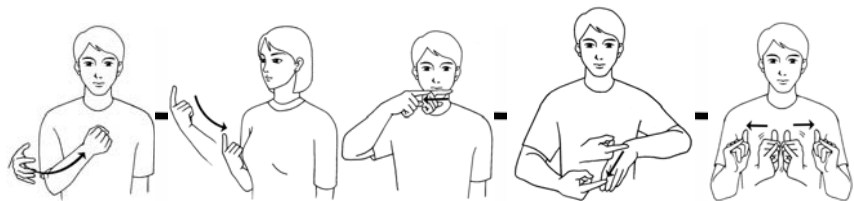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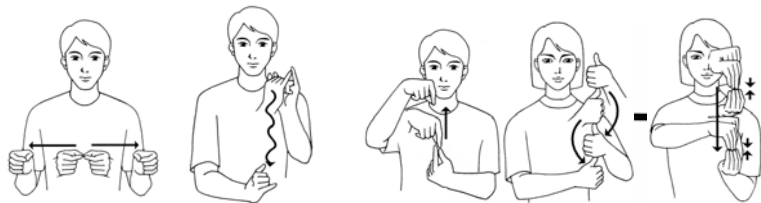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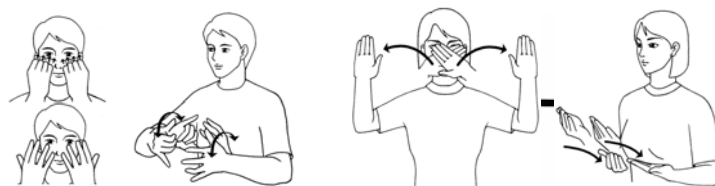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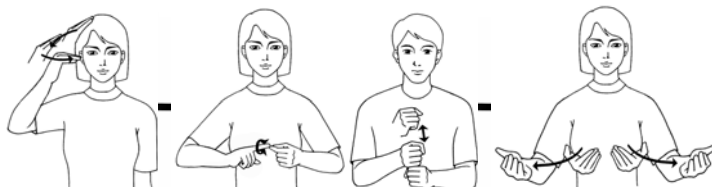
1. 강 산 도 빼 어 닐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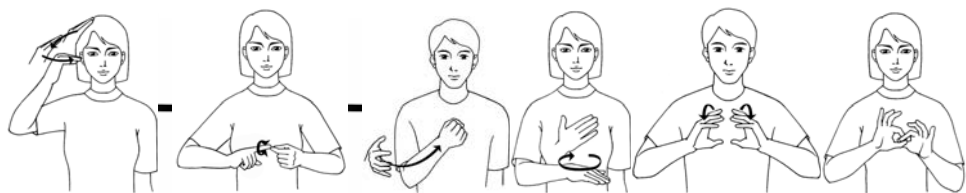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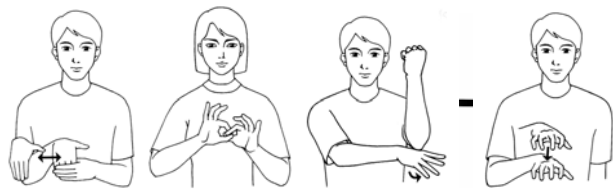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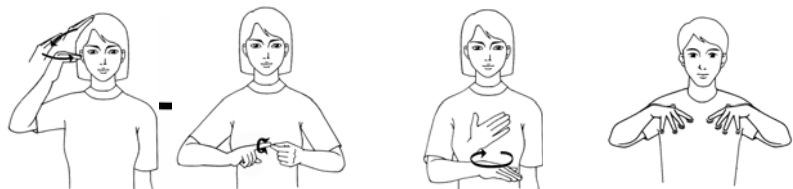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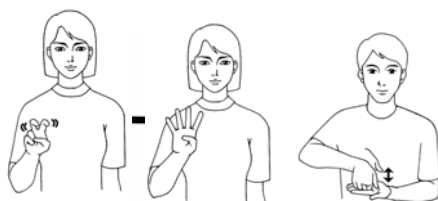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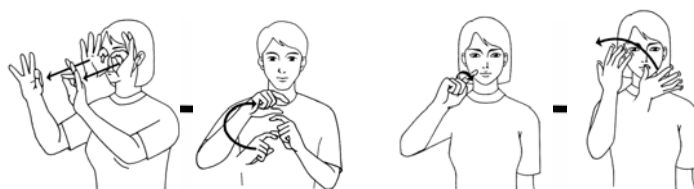
배 달 의 나 라













그 속 에 모 든 이 치





갖 추 어 있 고





누 구 나 쉬 배 우 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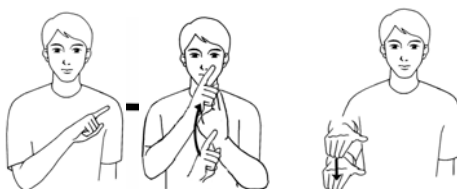
쓰 기 편 하 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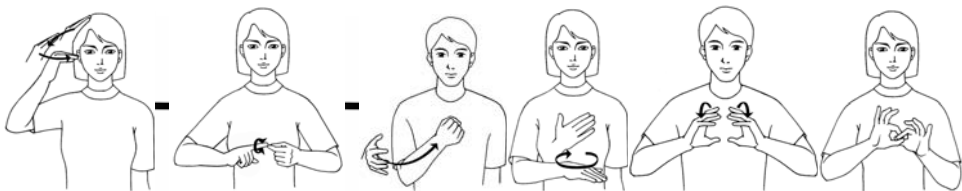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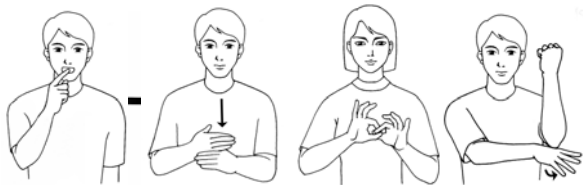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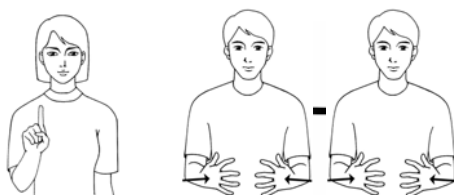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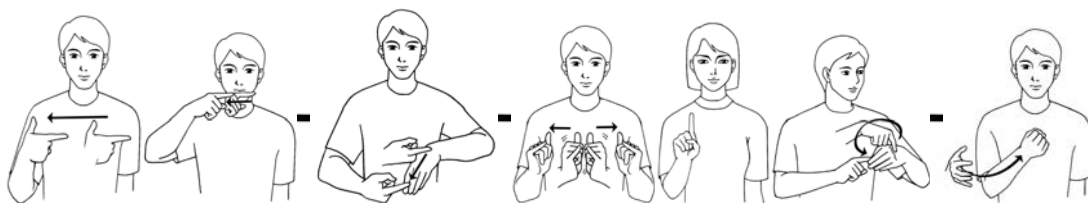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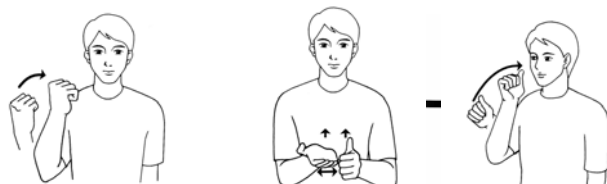
세 계 의 글 자 중 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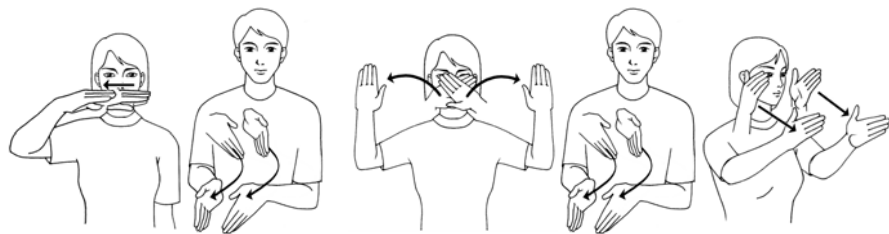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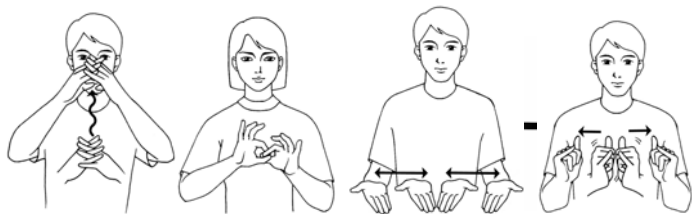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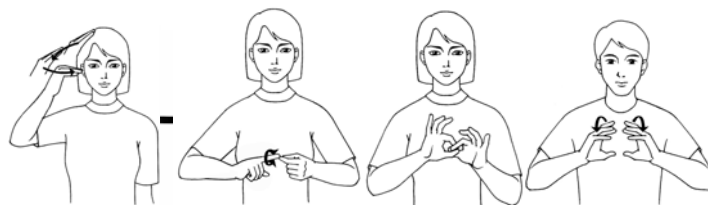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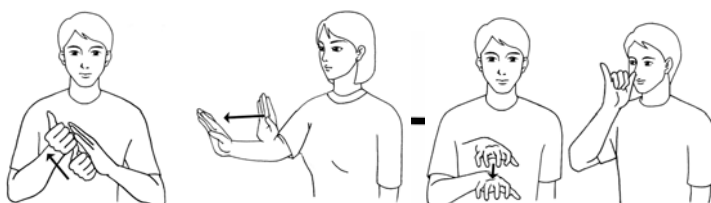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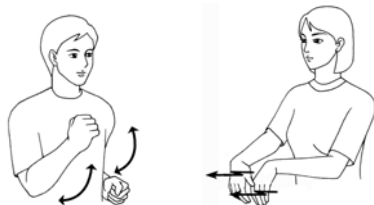
으 땀 이 도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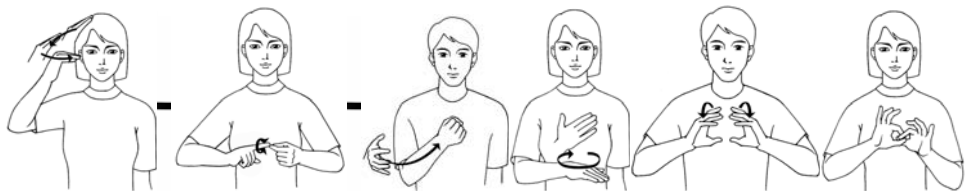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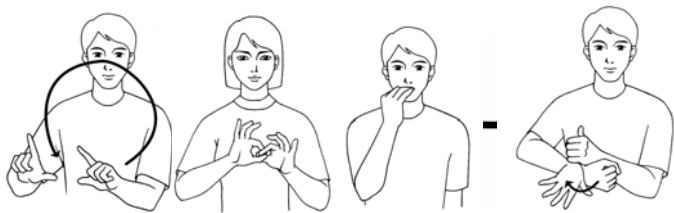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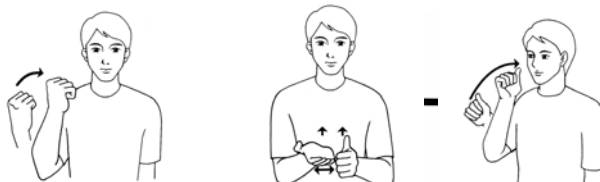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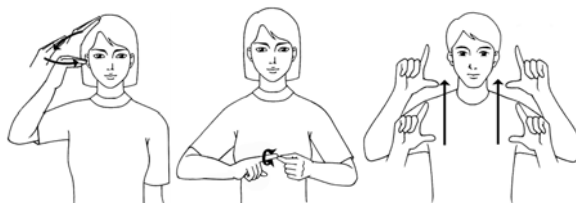


4. ‘한글날 노래’를 구성하는 수화 어절의 어원 정보 · 그림 · 설명문

‘한글날 노래’를 구성하는 수화 어절을 이해하는 데는 각 어절의 어원 정보가 도움이 되고, 그림으로 제시한 ‘한글날 노래’의 수형 · 수동 · 수향을 이해하는 데는 각각의 설명문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한글날 노래’를 구성하는 어절 중에서 어원 정보가 필요한 어절에 한해서 【 】 속에 어원 정보를 제시하였으며, 각 어절의 그림과 그림을 설명하는 설명문을 그림 밑에 제시하였다. 어절의 순서는 ‘한글날 노래’ 가사의 어절 순이며, 후렴의 어절은 한번만 제시하였다.

한글날

【한글+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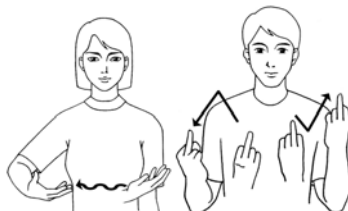
오른 손바닥으로 머리 오른쪽을 스쳐 내리며 손바닥을 반쯤 구부려 끝을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왼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고 끝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전후로 손목을 돌리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가 위로 향하게 하여 가슴 앞에서 동시에 올린다.

노래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반쯤 구부려 입 앞에서 돌리며 밖으로 올린다.

강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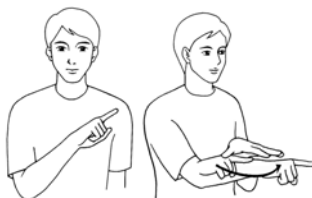
【강+ 산】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상하로 약간 흔들며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다음, 두 주먹의 2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동시에 약간씩 올렸다 내렸다 하며 양옆으로 벌린다.

빠어났다

【제일+앞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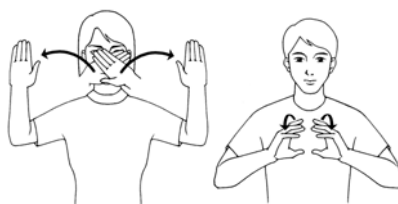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왼쪽 어깨 앞에 댄 다음,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아래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고, 그 밑으로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손 뒤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돌리며 왼손 앞으로 내민다.

배달의 나라

'배달'은 '밝달'에서
나온 말로 '밝은 나
라'라는 뜻이다.

【밝다+나라】



두 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얼굴 앞에서 교차하게 하였다가 양옆으로 벌린 다음, 두 손의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세워 밖으로 약간 돌린다.

긴

【길다】



1·5지 끝을 맞댄 두 주먹을 모로 세워 맞댔다가 양옆으로 벌린다.

역사



4·5지를 펴서 세운 두 손을 마주 댔다가 오른손만 약간 흔들면서 아래로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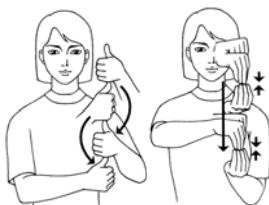
오랜

【오래】



1·5지 끝을 맞댄 두 주먹을 손끝이 닿게 상하로 맞댔다가 오른손만 위로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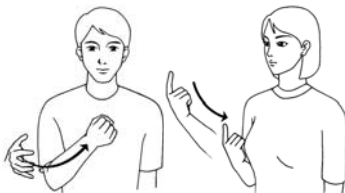
전통



두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머리 왼쪽에서 상하로 이어대고 번갈아 내린 다음, 손끝을 모은 두 손을 상하로 두 번 마주 댔다 떼며 아래로 내린다.

지녀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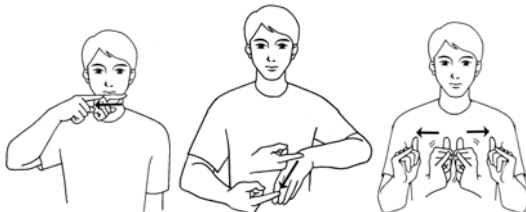
【가지다+ 오다】



손바닥이 왼쪽으로 손가락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안으로 당기며 주먹을 쥔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한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몸 가까이로 당긴다.

겨레

【빨강(피)+ 이어 내리는 동작+ 사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옆면으로 입술 밑을 오른쪽으로 스쳐내고, 그 끝으로 왼 손등을 내려 그은 다음, 두 주먹의 4·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맞대고 세워 좌우로 두 번 약간 돌리며 벌린다.

거룩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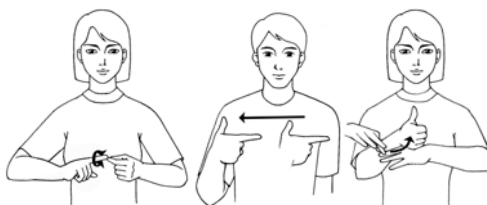
【거룩하다】



오른 손끝을 약간 구부려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코밑까지 서서히 올리며 손끝을 모은다.

세종대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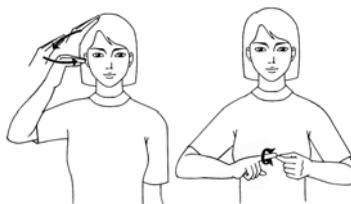
【한글+크다+왕】



왼손의 1·5지 끝을 맞대고 그 끝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전후로 손목을 돌리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왼손의 2지 옆면을 오른손의 1·5지 끝으로 스쳐 올린 다음, 주먹을 쥐고 5지를 펴서 왼 손등에 세운다.

한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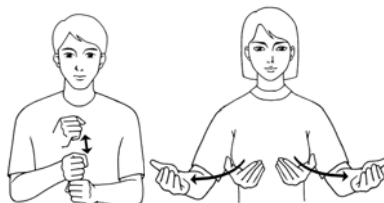
【한국+글자의 이
치】



오른 손바닥으로 머리 오른쪽을 스쳐 내리며 손바닥을 반쯤 구부려 끝을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왼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고 끝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전후로 손목을 돌린다.

퍼시니

【만들다+베풀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의 밑면으로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윗면을 두 번 두드린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손을 벌리며 내민다.

새

【새롭다】



두 손 각각 손끝을 모아 끝을 양쪽 눈 밑에 댔다가 떼며 활짝 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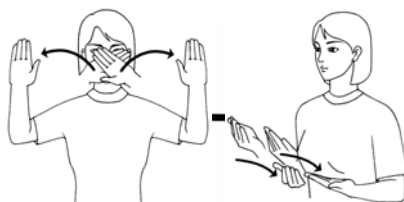
세상



45지를 편 오른 주먹과, 손가락을 벌려 구부린 왼손을 마주 보게 하여 전후로 돌린다.

밝혀주는

【밝다+ 받다】



두 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얼굴 앞에서 교차하게 하였다가 양옆으로 벌린 다음,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두 손을 안으로 당긴다.

해가

【해】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가 위로 향하게 하여 가슴 앞에서 동시에 위로 올린다.

돌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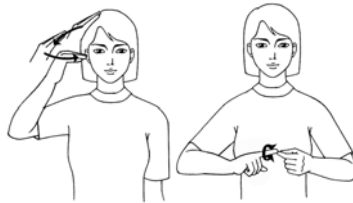
【돌다】



왼팔을 손등이 위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두고, 그 손바닥 밑에서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천천히 위로 올린다.

한글은

【한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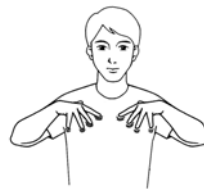
오른 손바닥으로 머리 오른쪽을 스쳐 내리며 손바닥을 반쯤 구부려 끝을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왼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고 끝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전후로 손목을 돌린다.

우리



오른 손바닥을 가슴에 댔다가 손등이 위로 향하게 하여 오른쪽으로 한 바퀴 크게 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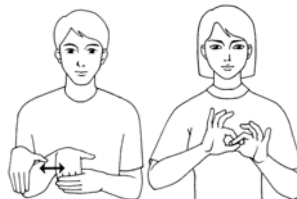
자랑



두 손의 5지 끝을 양쪽 가슴에 대고 나머지 손가락을 상하로 흔든다.

문화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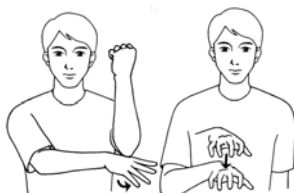
【문화+ 의】



왼손의 5지와 나머지 손가락으로 ‘ㄷ’자 모양을 만들어 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우고,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편 오른 손가락을 왼 손가락 사이에 옆으로 두 번 넣었다 뺀 다음, 두 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서로 낀다.

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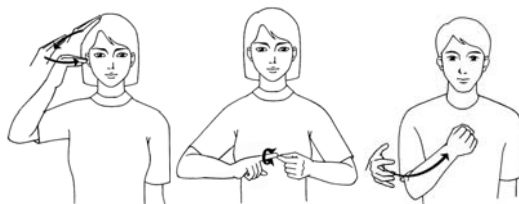
【근본+ 곳】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주먹을 쥐고 세운 왼팔의 팔꿈치 밑에 오른 주먹의 등을 대고 손가락을 편 다음,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반쯤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리다가 멈춘다.

이 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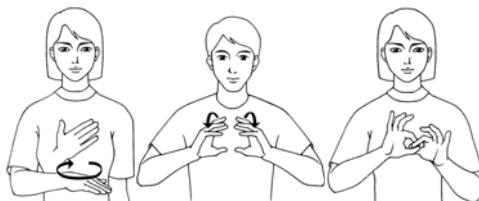
【한글+ 가지다】



오른 손바닥으로 머리 오른쪽을 스쳐 내리며 손바닥을 반쯤 구부려 끝을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왼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고 끝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전후로 손목을 돌리고, 손바닥이 왼쪽으로 손가락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안으로 당기며 주먹을 쥘다.

이 나라의

【우리+ 나라+ 의】



오른 손바닥을 가슴에 댔다가 손등이 위로 향하게 하여 오른쪽으로 한 바퀴 크게 돌린 다음, 두 손의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세워 밖으로 약간 돌리고, 두 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서로 낀다.

힘을

【힘】



오른 주먹을 쥐고 팔을 구부려 당긴다.

기르자

【기르다+ -자】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우고 옆면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의 4지 옆면으로 가볍게 치면서 두 손을 동시에 올린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오른쪽 어깨 뒤쪽으로 힘주어 젖힌다.

볼수록

【보다+ 더욱】



두 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두 눈에 댔다가 약간 힘주어 밖으로 내민 다음, 1·5지를 펴서 1지가 위에 5지가 아래에 놓이게 하여 약간 구부린 오른 주먹을, 같은 모양의 왼 주먹의 5지 밑에 댔다가 왼 주먹의 1지 위에 올려놓는다.

아름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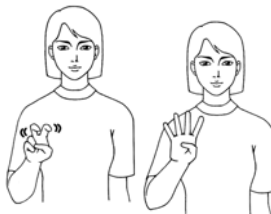
【아름답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볼에 대고 살짝 돌린 다음, 오른손을 펴서 눈앞에서 손가락을 가볍게 흔들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원을 그린다.

스물넉

【24】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벌려 약간 구부려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좌우로 약간 흔든 다음, 5지를 접고 1·2·3·4지를 펴서 벌려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자는

【문자】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을,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두 번 댔다 떼낸다.

그

【한글】



왼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고 끝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전후로 손목을 돌린다.

속에

【안】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 손바닥 안쪽에서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수평으로 원을 그리고 그 가운데에 점을 찍는다.

모든

【모두】



두 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마주 댔다가 원을 그리며 내려 두 손의 4지 옆면이 닿게 한다.

이치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 낸다.

갖추어있고

【포 함 하 다 + 있
다】



두 손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하여 중앙으로 모은 다음, 4·5지를 편 오른 주먹의 5지 끝을 코끝에 댄다.

누구나



구부린 두 손의 손가락 등으로 양쪽 뺨을 번갈아 한 번씩 스쳐 내린다.

쉬

【쉽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을 입에 댔다가 내려 왼 손바닥에 댄다.

배우며

【배우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코로 향하게 구부려 코로 당기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한다.

쓰다



오른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어 왼 손바닥에 대고 전후로 약간 움직이며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편하니

【편하다+때문】



두 손바닥을 상하로 가슴에 댔다가 내리며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한 다음, 왼 주먹의 손가락 등을 오른 손바닥으로 가볍게 치며 손을 떼다.

세계의

【세계】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동시에 밖으로 크게 돌린다.

글자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두 번 댔다 떼다.

중에

【중(中)】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1·5지 중간에 오른손을 4지 옆면이 닿게 세운다.

으뜸이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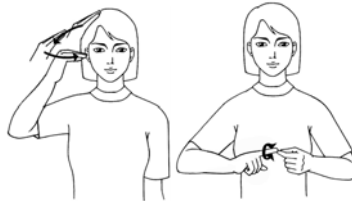
【으뜸+ -이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왼쪽 어깨 앞에 댄 다음,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왼손 바닥 밑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돌리며 왼 손끝으로 올린 다음, 오른손을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약간 내린다.

한글은

【한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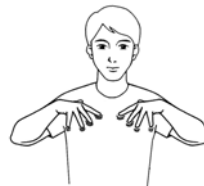
오른 손바닥으로 머리 오른쪽을 스쳐 내리며 손바닥을 구부려 끝을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왼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고 끝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전후로 손목을 돌린다.

우리



오른 손바닥을 가슴에 댄다가 손등이 위로 향하게 하여 오른쪽으로 한 바퀴 크게 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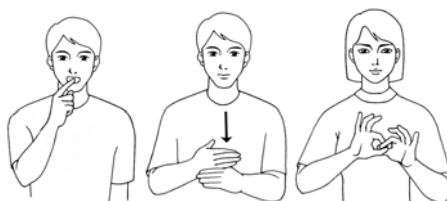
자랑



두 손의 5지 끝을 양쪽 가슴에 대고 나머지 손가락을 상하로 흔든다.

민주의

【백색진영+ 의】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치아를 가리킨 다음,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 위에 손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을 내려놓고, 두 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서로 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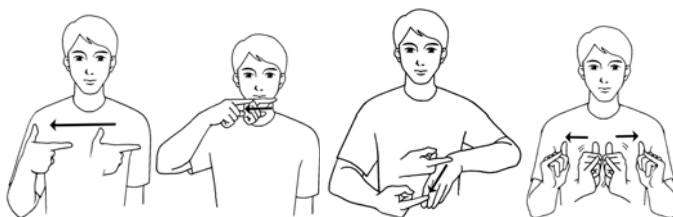
근본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주먹을 쥐고 세운 왼팔의 팔꿈치 밑에 오른 주먹의 등을 대고 손가락을 편다.

한겨레

【크다+ 겨레】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옆면으로 입술 밑을 오른쪽으로 스쳐내고, 그 끝으로 왼 손등을 내려 그은 다음, 두 주먹의 4·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맞대고 세워 좌우로 두 번 약간 돌리며 벌린다.

한 맘으로

【하나+ 마음+ 가
지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 끝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댔다가 왼 손바닥에 댄 다음, 손바닥이 왼쪽으로 손가락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안으로 당기며 주먹을 쥘다.

한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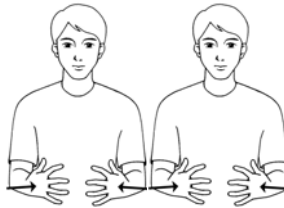
【하나】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뭉치어

【모으다+모으다】



두 손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하여 중앙으로 모으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한다.

힘차게

【힘차다】



주먹을 쥔 왼 주먹 등에 오른손을 4지 옆면이 닿게 대고 위로 빠르게 스쳐 올리며 주먹을 쥔다.

일어나는

【일어나다】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등을 대고 눌렀다가 일으켜 세운다.

건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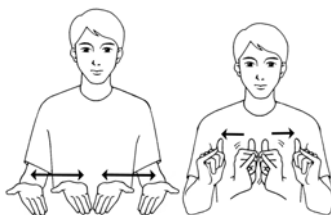
【건설+의】



두 손을 펴서 손가락 끝마디에 각지를 끼고 좌우로 비스듬히 세워 손목을 좌우로 약간씩 돌리며 위로 올린 다음, 두 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서로 낀다.

일군

【일+사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손을 양옆으로 붙였다 벌리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한 다음, 두 주먹의 4·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맞대고 세워 양옆으로 두 번 약간 돌리며 벌린다.

바른

【바르다】



손끝이 왼쪽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의 1지 옆면으로 코밑을 오른쪽으로 스쳐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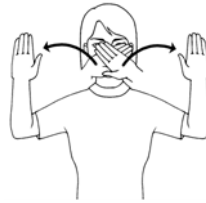
길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좌우로 움직이며 내민다.

환한

【환하다】



두 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얼굴 앞에서 교차하게 하였다가 양옆으로 벌린다.

길로

【길+ 향하다】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좌우로 움직이며 내민 다음, 두 손을 손바닥이 마주 보게 하고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얼굴 양옆에서 밖으로 쭉 내민다.

달려

【달리다】



주먹을 쥔 두 팔을 양쪽 가슴 옆에서 번갈아 두 번 올렸다 내린다.

나가자

【나아가다+ 나아가다】



두 손을 펴서 손가락이 아래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밖으로 짧게 한번 내밀고 길게 또 한 번 힘주어 내민다.

희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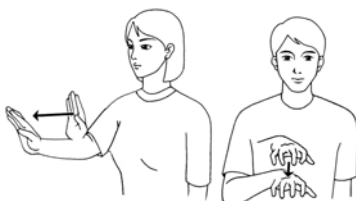
【희망】



5지를 편 오른 주먹의 바닥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왼 손바닥을 스쳐 올린다.

앞에

【앞+ 곳】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세운 오른 손바닥을 가슴 앞에서 밖으로 내민 다음,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반쯤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리다가 멈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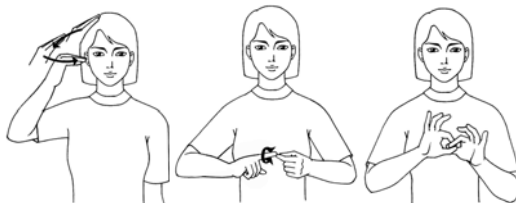
있다



4·5지를 편 오른 주먹의 5지 끝을 코끝에 댄다.

한글의

【한글+ 의】



오른 손바닥으로 머리 오른쪽을 스쳐 내리며 손바닥을 구부려 끝을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왼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고 끝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전후로 손목을 돌리고, 두 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서로 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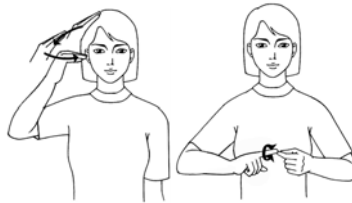
나라



두 손의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세워 밖으로 약간 돌린다.

한글은

【한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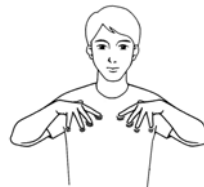
오른 손바닥으로 머리 오른쪽을 스쳐 내리며 손바닥을 구부려 끝을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왼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고 끝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전후로 손목을 돌린다.

우리



오른 손바닥을 가슴에 댔다가 손등이 위로 향하게 하여 오른쪽으로 한 바퀴 크게 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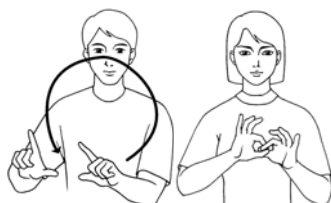
자랑



두 손의 5지 끝을 양쪽 가슴에 대고 나머지 손가락을 상하로 흔든다.

생활의

【생활+ 의】



1·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쥔 두 주먹을 동시에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린 다음, 두 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서로 낀다.

무기



모아 쥔 오른 손끝을 입 오른쪽으로 빼는 동작을 한 다음, 5지를 펴서 모로 세운 왼 주먹 밑에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의 손목을 댔다가 오른쪽으로 옮기며 손가락을 편다.

논의

수화로 하는 애국가·국기에 대한 맹세·한글날 노래 표준화 연구는 이것이 처음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한 때문인지 표준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개진되었다. 다른 의견은 물론 일치하는 의견도 단어의 뜻과 단어가 의미하는 것의 변별적 자질을 표현하는 수화 단어로서의 적절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수용하였으며, 수용 안에 대한 검토원과 표준화 연구 발표회에 참가한 참가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표준안을 확정하였다.

수화로 하는 애국가·국기에 대한 맹세·한글날 노래가 표준화 되었으면, 이를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우선 농인 사회에서 표준화된 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농학교와 농아인 단체에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모든 행사에서 표준화된 것이 사용될 수 있게 함은 물론 이를 위해서 수화통역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음악은 목소리나 악기로 연주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으나 애국가와 한글날 노래를 수화로 표준화하면서 음악은 몸으로도 연주할 수 있으며, 시각을 통해서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농아인도 음악을 감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건청인이 들을 수 있게 만든 곡을 수화로 표현할 수 있게 함은 물론 농인이 수화로 음악을 작곡하여 연주하고, 이를 시각을 통해서 감상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수화로 하는 음악을 수악(手樂)이라고 할 수 있다면 수악을 전문으로 하는 수악가(手樂家) 또는 수악인(手樂人)을 배출하는 일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國史編纂委員會(1955). **愛國歌 作詞者 調査資料**. 서울: 同委員會.
- 김강하(1992). **한국근대사에 나타난 애국가의 성립과정과 제 양상**. 석사학위논문
효성여자대학교, 대구.
- 김경래(1978). **애국가와 안익태**. 서울: 성광문화사.
- 서울聾學校(2003). **九十年의 발자취: 1913~2003**
- 서울선화학교 1종도서 연구개발위원회(1993). **특수학교(청각장애) 중학부 수화 1**. 충남: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康敬淑(2001). **20세기 초 唱歌의 普及과 韓國 近代音樂의 胎動: 愛國歌 運動 및 近代 歌曲의 出現을 中心으로**. 碩士學位論文. 韓國外國語大學校 教育大學院, 서울.
- 吳世昌(1976). **愛國歌 作詞 經緯考**. 嶺南大學校 文理科大學, 文理大學報, 6, 41~67.
- 윤혜정(1997). **애국가의 시각적 표현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대전.
- 李明花(1999). **愛國歌 형성에 관한 연구**. 實學思想研究, 10 · 11, 637~667.
- 이유선(1985). **한국양악백년사**. 서울: 음악춘추사.
- 전정임(1998). **안익태**. 서울: 시공사.
- 鄭光鉉(1955). **愛國歌作詞者에 關한 意見書**.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2005). **한국수화사전**. 문화관광부.
-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2007). **한국수화 문형사전**. 국립국어원.
- 한글학회(2007). **한글학회 발자취**. 한글학회 홈페이지.
- 허영한(2006). **자필 기록에 의한 안익태의 유럽 활동 재구성**. 계간 낭만음악. 19(1)(통권 73), 겨울호, 5~31.

인사말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 제2단계 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국립국어원의 이상규 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 위원, 특히 연구실무위원 여러분과 애국가 뜻풀이를 도와주신 권재일 교수님과 최혜원 학예연구관님, 이 사업의 추진을 적극 도와주신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님과 실무를 헌신적으로 해온 오진영 대리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이명화(1999)의 논문 「애국가 형성에 관한 연구」와 국사편찬위원회(1955)의 「애국가 작사자 조사 자료」가 애국가의 연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안익태기념재단의 자료와 전정임(1998)의 저서 「안익태」, 허영한(2006)의 논문 「자필 기록에 의한 안익태의 유럽활동 재구성」이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한글학회(2007)의 홈페이지가 한글날의 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밝히며, 이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2007년 10월 2일

한국표준수화규범제정 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승국

수화로 하는 애국가 · 국기에 대한 맹세 · 한글날 노래 표준화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

◇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

위원장	김승국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부위원장	변승일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위원	주신기	전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위원	안세준	전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위원	김기범	전 서울농학교 교사
위원	윤우중	한국농아인협회 이사
위원	손천식	영락농아인교회 담임목사
위원	권재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위원	김희진	전 국립국어원 국어진흥부장
위원	최용기	국립국어원 국어진흥부장
위원	강주해	갈로랫대학교 교목
위원	김영관	전 춘천계성학교 교무부장
위원	장진석	나사렛대학교 교수
위원	장진권	서울농학교 교사
위원	김철관	전 인천성동학교 교감
위원	윤병천	나사렛대학교 교수
위원	이율하	춘천동원학교 교사
위원	이대섭	한국농아인협회 서울협회 회장
위원	권석현	한국농아인협회 경북협회 총무부장
위원	안석준	수화통역사

간사	최혜원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간사	최종진	한국농아인협회 총무부장 겸 수화정책사업부장
	오진영	한국농아인협회 수화정책사업부 대리

◇ 연구실무위원

변승일, 김영관, 주신기, 안세준, 윤우중, 김기범, 권재일, 김승국

◇ 수화 검토 단체

한국농아인협회 시도협회: 서울협회, 부산협회, 대구협회, 광주협회, 인천협회,

경기협회, 충북협회, 충남협회, 전북협회, 전남협회, 경남협회, 경북협회,

강원협회, 제주협회

농학교: 서울농학교, 대구영화학교, 부산배화학교, 전주선화학교, 춘천계성학교

◇ 수악인(手樂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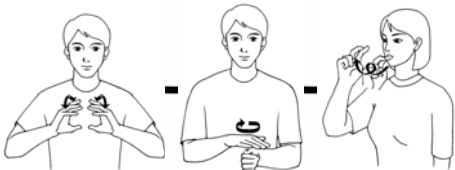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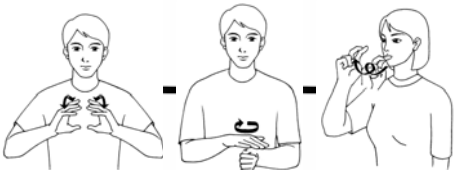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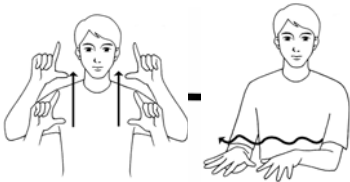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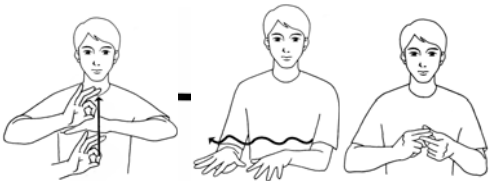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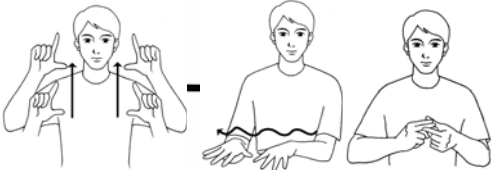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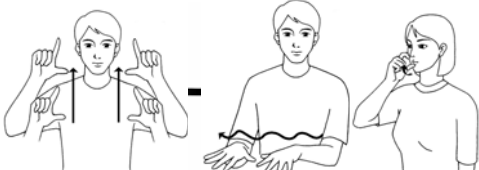
이현석, 정효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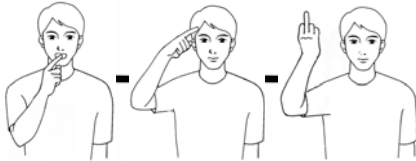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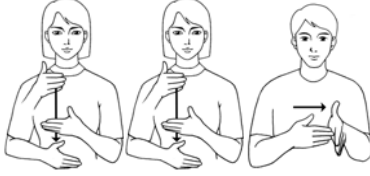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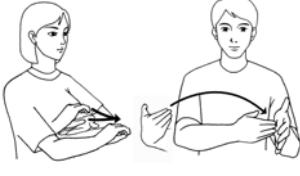
부록 1: 조사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와 표준화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비교표

부록 2: 조사된 ‘국기에 대한 맹세’의 어절별 수화와 표준화한 ‘국기에 대한 맹세’의 어절별 수화 비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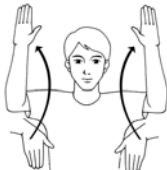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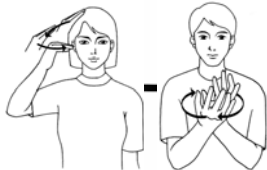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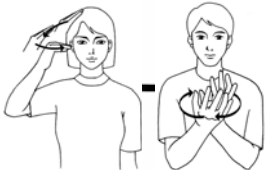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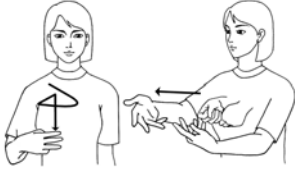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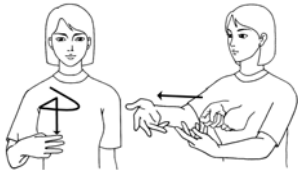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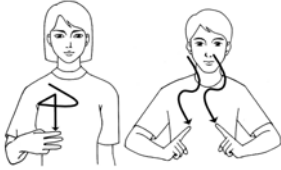
부록 1: 조사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와 표준화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비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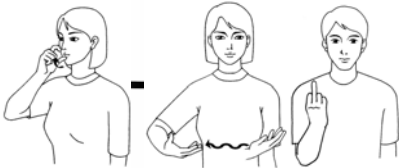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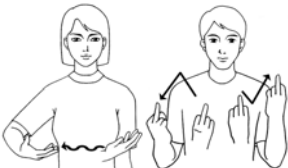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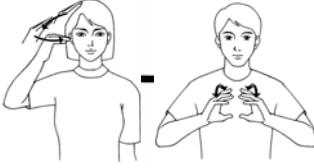
애국가의 어절	조사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표준화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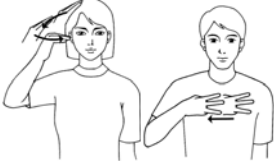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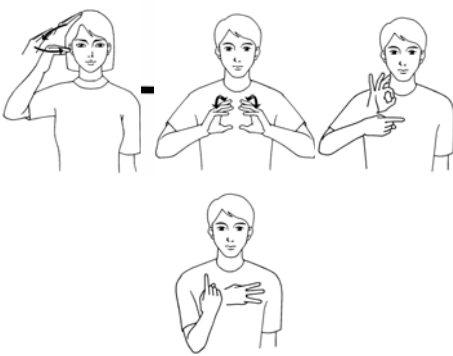
애국가의 어절	조사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표준화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마르고		
	 	
		
		

애국가의 어절	조사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표준화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닿도록		
		
		
		
		
하느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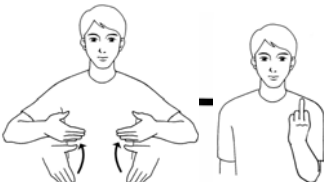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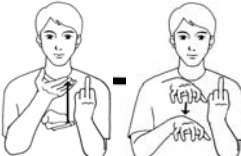
애국가의 어절	조사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표준화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보우하사		
우리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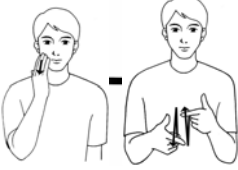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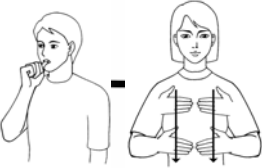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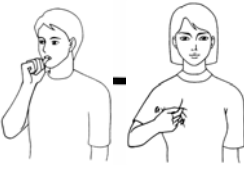
애국가의 어절	조사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표준화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만세		
		
무궁화		
삼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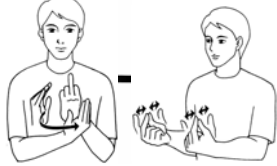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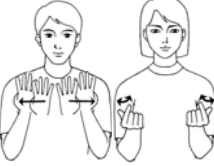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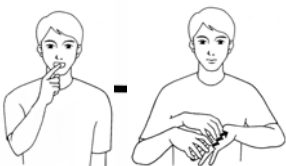
애국가의 어절	조사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표준화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화려		
		
		
강산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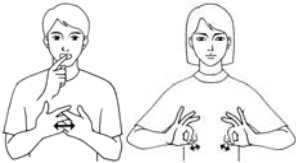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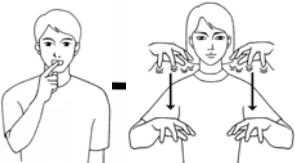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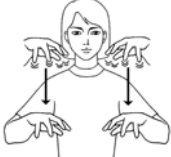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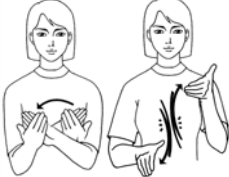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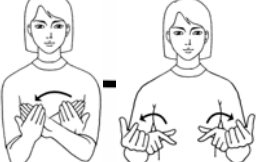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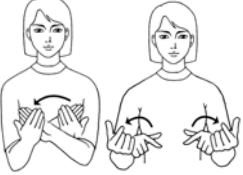
애국가의 어절	조사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표준화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사람		
대한으로		
		
		
		
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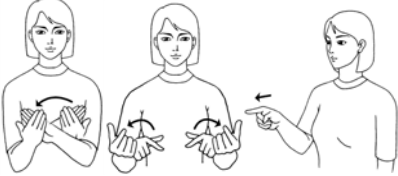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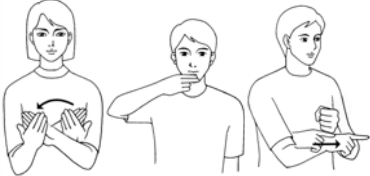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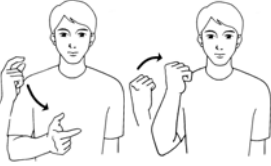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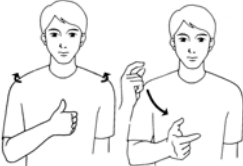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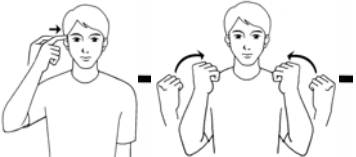
애국가의 어절	조사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표준화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보전하세		

애국가의 어절	조사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표준화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남산		
		
위에		
		
저		
소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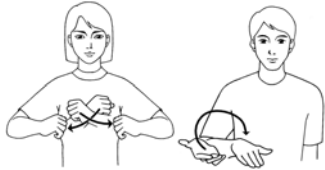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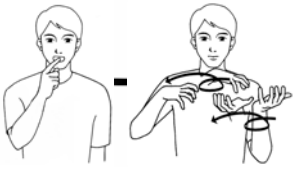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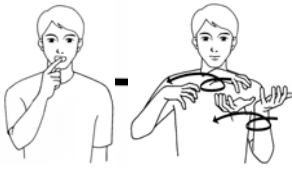
애국가의 어절	조사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표준화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철갑을		
		
		
두른 듯		

애국가의 어절	조사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표준화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바람		
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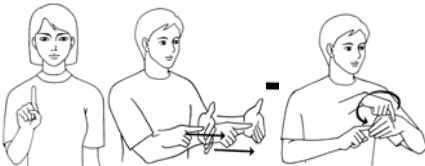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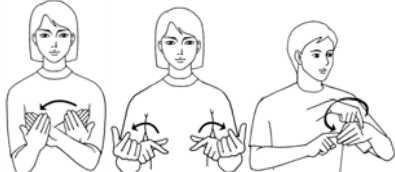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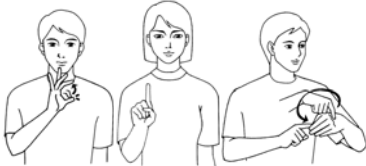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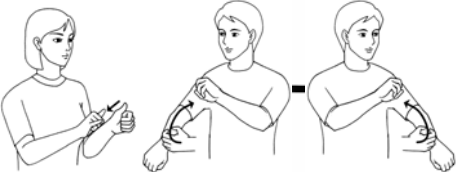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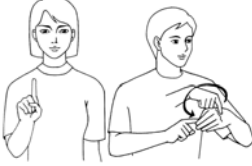
애국가의 어절	조사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표준화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불변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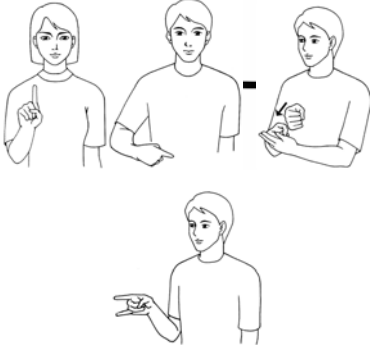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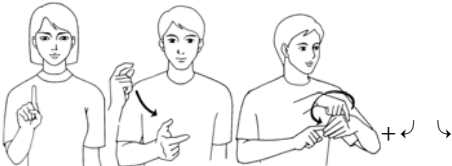
애국가의 어절	조사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표준화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우리		
기상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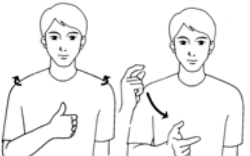
애국가의 어절	조사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표준화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가을		
하늘		
공활한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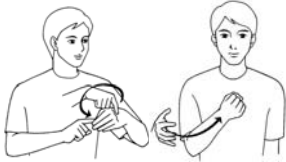
애국가의 어절	조사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표준화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높고		
구름		
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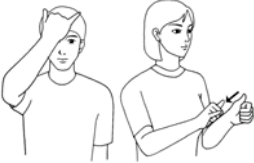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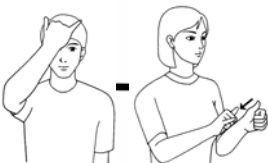
애국가의 어절	조사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표준화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밝은		
달은		
우리		
가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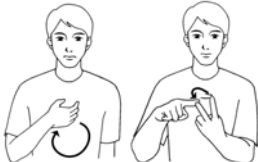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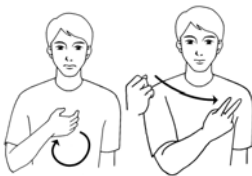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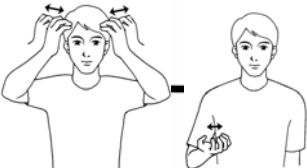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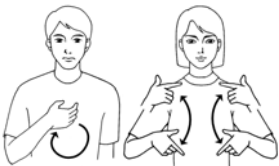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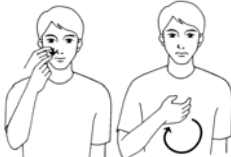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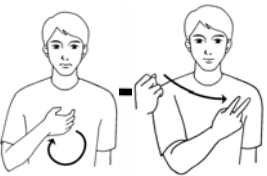
애국가의 어절	조사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표준화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일편단심 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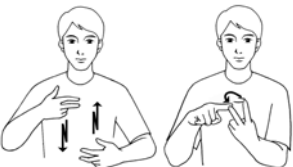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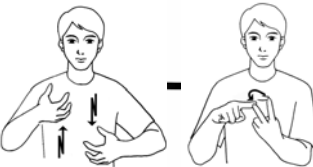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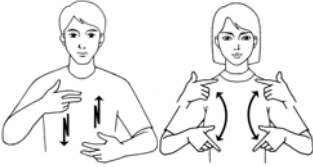
애국가의 어절	조사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표준화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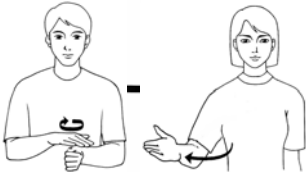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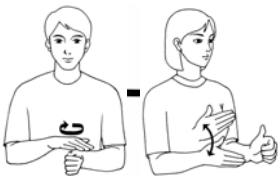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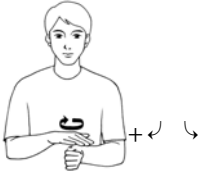
애국가의 어절	조사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표준화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기상과		
		
		
		
		
		
		

애국가의 어절	조사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표준화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이		
		
맘으로		
		
충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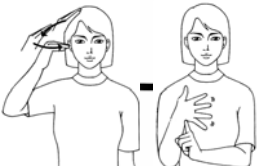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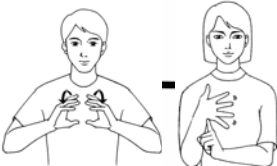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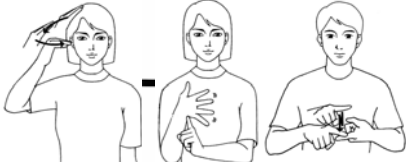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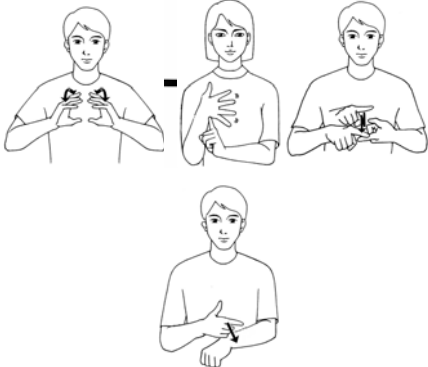
애국가의 어절	조사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표준화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다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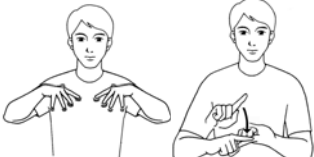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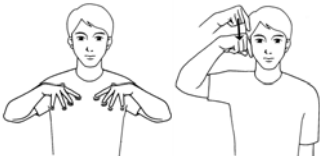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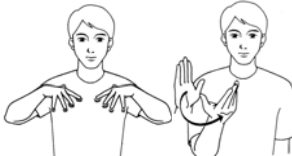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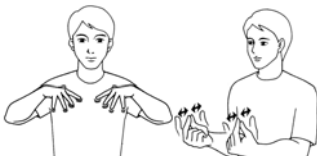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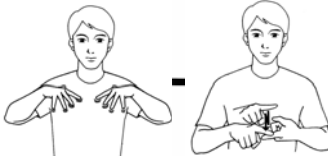
애국가의 어절	조사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표준화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괴로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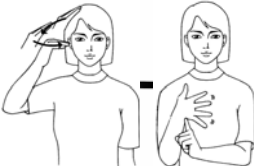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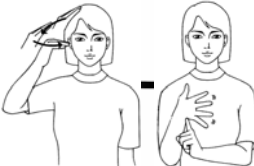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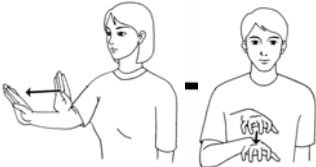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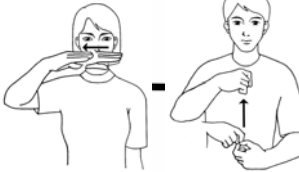
애국가의 어절	조사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표준화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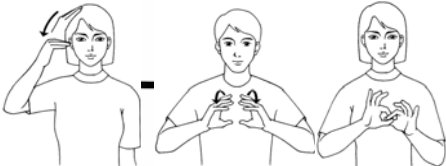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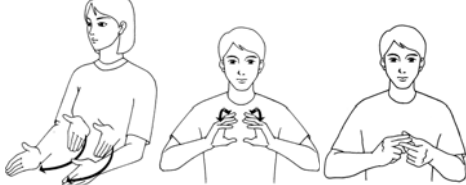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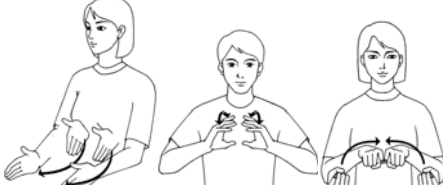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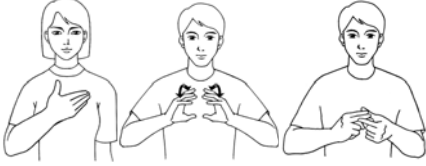
애국가의 어절	조사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표준화한 애국가의 어절별 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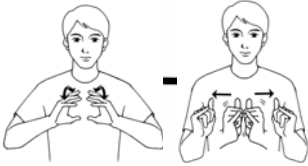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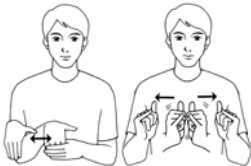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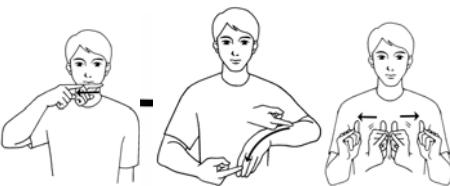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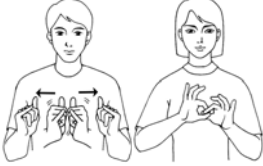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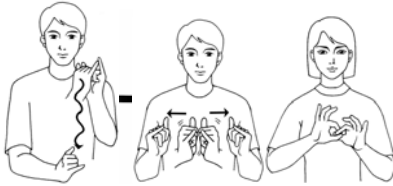
부록 2: 조사된 ‘국기에 대한 맹세’의 어절별 수화와 표준화한 ‘국기에 대한 맹세’의 어절별 수화 비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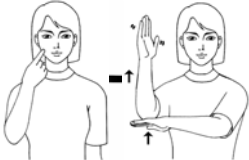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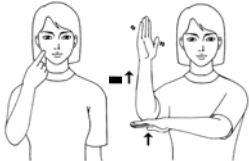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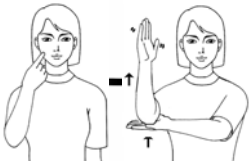
국기에 대한 맹세의 어절	조사된 국기에 대한 맹세의 어절별 수화	표준화한 국기에 대한 맹세의 어절별 수화
국기에 (대한)		
		
		
		
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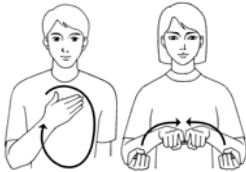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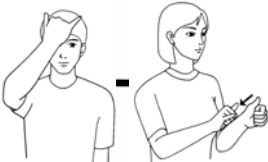
국기에 대한 맹세의 어절	조사된 국기에 대한 맹세의 어절별 수화	표준화한 국기에 대한 맹세의 어절별 수화
		
나는		
자랑스러운 (자랑스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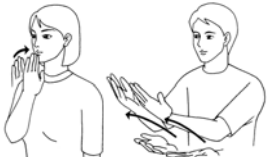
국기에 대한 맹세의 어절	조사된 국기에 대한 맹세의 어절별 수화	표준화한 국기에 대한 맹세의 어절별 수화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2007. 7. 27.)에 의해 개정	
정의로운	"	

국기에 대한 맹세의 어절	조사된 국기에 대한 맹세의 어절별 수화	표준화한 국기에 대한 맹세의 어절별 수화
대한민국의	"	
조국과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2007. 7. 27.)에 의해 개정
		
		
		
민족의		

국기에 대한 맹세의 어절	조사된 국기에 대한 맹세의 어절별 수화	표준화한 국기에 대한 맹세의 어절별 수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2007. 7. 27.)에 의해 개정
무궁한		

국기에 대한 맹세의 어절	조사된 국기에 대한 맹세의 어절별 수화	표준화한 국기에 대한 맹세의 어절별 수화
		
영광을		
		
		
		
위하여		
		

국기에 대한 맹세의 어절	조사된 국기에 대한 맹세의 어절별 수화	표준화한 국기에 대한 맹세의 어절별 수화
몸과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2007. 7. 27.)에 의해 개정
		
		
마음을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2007. 7. 27.)에 의해 개정
바쳐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2007. 7. 27.)에 의해 개정
충성을		
		

국기에 대한 맹세의 어절	조사된 국기에 대한 맹세의 어절별 수화	표준화한 국기에 대한 맹세의 어절별 수화
		
		
다할 (것을)		
		
		
굳게		

국기에 대한 맹세의 어절	조사된 국기에 대한 맹세의 어절별 수화	표준화한 국기에 대한 맹세의 어절별 수화
다짐합니다		
		
		

수화로 하는
애국가 · 국기에 대한 맹세 · 한글날 노래

2007. 12. 31. 인쇄

2007. 12. 31. 발행

편찬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

발행 국립국어원 · 한국농아인협회

인쇄 반석
